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희 명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가브리엘 루아의 소설에 나타나는
자연과 인간의 생태적 순환

- 『내 생애의 아이들』 과 『알타몽가는 길』 을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박 상 현

가브리엘 루아의 소설에 나타나는
자연과 인간의 생태적 순환

- 『내 생애의 아이들』 과 『알타몽가는 길』 을 중심으로 -

김 희 명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박 상 현

인 준 서

박상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라기 3:7) 만일 인간에게 화해와 회귀를 촉구하는 것이 신이 아니라 어떤 장소(場所)가 된다면, 퀘벡 출신 프랑스어권 작가 가브리엘 루아(Gabrielle Roy 1909-1983)는 그러한 장소가 곧 고향의 자연이 되는 현대작가들 중의 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고향의 자연이 목가적인 자연 세계 혹은 안빈낙도(安貧樂道)적인 세계를 넘어서 현실과의 구체적인 고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브리엘 루아의 자연관은 유의미하다. 그리고 그 자연관이 하나의 종교적 구원의 형태로 승화되고 있다는 점이 본 논문의 주요 모티프가 된다.

그녀의 자전적 소설 중 『내 생애의 아이들 *Ces enfants de ma vie*』이나 『알타몽으로 가는 길 *La route d'Altamont*』에서 루아는 마니토바의 척박한 고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생(一生)들과 자연 환경, 그리고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재생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현실적 고통 속에서 획득되는 것이기에 가치 있는 아름다움이다. 여기에는 자연의 위대함을 일깨우는 정교한 묘사, 그리고 그녀가 맞이하는 모든 관계들의 진정성이 녹아있는 그녀의 문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루아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관계적 양태를 매개로 모든 만물이 공존하고 있음을 일깨운다. 또한 인간이 바로 자연의 일부이며, 순환의 질서 속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시한다.

특히 『내 생애의 아이들』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들은 이주민, 아이, 노인

등 소외된 계층이다. 광대하고 척박한 평원 지역이 특징인 캐나다의 자연환경은 이러한 계층이 감내하는 삶의 조건들과 지속적으로 맞물린다. 때문에 고향의 척박한 자연환경은 작가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경우 자연과 인간 조건의 참된 가치를 일깨우는 고유한 감성의 밑바탕이 되는 의미적 장소로 형상화된다. 요컨대 장소의 의미는 인간이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루아의 소설 속 관계 맺기를 살펴보자면 소설을 구성하는 오브제들의 상관관계를 읽을 수 있다. 소설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주제로 사랑, 이별, 슬픔, 병듦, 성공, 죽음, 희망 등이 있지만, 가브리엘 루아의 작품에서는 자연과 아이와 노인이라는 존재가 언제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생태학적 시선으로 자연환경과 아이와 노인이라는 각각의 존재가 루아의 작품 속에서 어떻게 융해되어 융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내 생애의 아이들 *Ces enfants de ma vie*』, 『알타몽으로 가는 길 *La route d'Altamont*』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1부에서는 상처받은 자연환경과 위기의 노인, 그리고 외로운 아이를 통하여 소외된 대상으로서의 자연과 인간을 살펴본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운명 공동체로서 현존하고 있는지를 다각적인 인물 분석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정초작업이다.

2부에서는 보살핌과 치료자로서의 자연, 그리고 발견자와 창조자로서의 노인과 아이의 순수함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공생한다는 의미를 알아본다. 이는 인간이 얼마간 잊고 있었던 공생의 가치를 문학적 상상력 속에서 제시하는 장(章)이다. 공생의 가치는 휴머니즘의 기존 개념이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연계된다.

3부에서는 죽음과 탄생, 소멸과 생성, 이별과 만남이 자연의 순환성과 함께

한다는 점을 다각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제시한다. 자연의 순환성은 인위적인 차별과 계급이 무효화되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담보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라는 인식에서 해방되고, 또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고 그 현존들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끊임없이 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소외	4
1) 상처받은 자연환경	5
2) 위기의 노인	10
3) 외로운 아이	15
2. 공생, 생명의 어울림	22
1) 보살핌과 치료자로서의 자연	22
2) 발견자, 창조자 노인	29
3) 순수성의 아이	42
3. 순환	51
1) 죽음과 탄생	52
2) 소멸과 생성	64
3) 이별과 만남	67
III. 결론	72
참고문헌	75
ABSTRACT	80

I. 서론

우리는 삶의 터전인 지구에서 만물의 생성, 성장, 그리고 소멸을 통해 끊임 없는 순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지구의 공전으로부터 비롯되는 계절의 순환, 그리고 우리 몸의 혈액이 온 몸을 돌며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대자연의 순환법칙 속에서 모든 만물이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 바로 자연의 일부이며, 순환의 질서 속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오늘날 인간의 문명이 초래한 자연 파괴는 그러한 망각이 빚어낸 매우 우려할 만한 사례이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자연의 순환성을 인지한다면 이러한 과정이 단순하게 한 사람의 인생처럼 끝나고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와의 연결고리로서 반복적으로 순환된다는 또 하나의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시간이라는 명제 앞에서 영원불멸한 것은 없지만 자연이나 인간이나 모든 우주의 사물들은 각각 제 역할을 다하고 나면 하나의 모양으로 머물러있지 않고 변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명제를 겸허하게 부정할 때, 우리는 이러한 순환의 고리를 문명 속에서 '발명'하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순환적 법칙을 문학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작가들 중의 하나가 바로 캐나다 퀘벡에서 활동한 가브리엘 루아(1909-1983)이다. 그녀는 캐나다 중부 마니토바 주의 생-보니파스 Saint-Boniface에서 태어나 1937년까지 고향에서 거주했으며 퀘벡 지

역으로 거처를 옮겨 그곳에서 일생을 마감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프랑스케 이민자로서 마니토바의 식민청 관리로 일했다. 루아가 자신의 자전적 소설들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작가의 유년 및 처녀 시절과 맞물려 있는 캐나다의 자연환경은 광대하고 척박한 평원 지역이 특징이다. 이러한 고향의 척박한 자연환경은 작가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경우 자연의 참된 가치를 일깨우는 고유한 감성의 밑바탕이 되는 의미적 장소로 형상화된다. 요컨대 장소의 의미는 인간이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

자연 환경이 루아의 작품 전체를 가로 지르는 가장 중요한 모티프가 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문제제기는 출발한다. 또한 그러한 문제제기는 문명 혐오와 자연 예찬이라는 당위적인 윤리의 ‘바깥’에서 문학의 새로운 생태적 감성과 그 비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과 연결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연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소여(所與)로서의 의미 내지 경험이 루아의 작품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면서 형상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루아의 작품 세계는 인간이 만물의 지배자라기보다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집”에 다른 생물 그리고 무생물과 함께 세 들어 사는 관계론적 존재임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있다.¹⁾ 따라서 본 논문은 방법론적 사유로서 생태학에 관련된 기존 연구와 이론들을 포괄할 것이다. 그와 함께 가브리엘 루아의 작품들을 통해서 기존에 정립된 생태 개념들을 설명하는 일보다는 이러한 개념들을 문학적 상상력 속에서 새롭게 고찰해 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1) 1866년 독일의 생물학자 헤켈은 생태학을 뜻하는 에콜로지 Ecology라는 어휘를 선보이는데, 그 어원은 ‘오이콜로지아 Oekologia’라는 그리스어와 연결된다. 이 단어에는 oikos(집, 거처)와 logos(학문, 연구)라는 의미들이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생태학이란 집을 연구하는 학문을 일컫는데, 여기서의 집이란 인간의 거처나 도시와 같은 인공적인 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체가 사는 장소, 넓게는 생태계 전체의 공간으로 확장된다. in 이찬규, 「가스통 바슐라르 혹은 행복의 생태학」, 『인문과학』, 제43집, 2009, p.87.

본 논문의 1부에서는 상처받은 자연환경과 위기의 노인, 그리고 외로운 아이를 통하여 소외된 대상으로서의 자연과 인간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운명 공동체로서 현존하고 있는지를 다각적인 인물 분석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정초작업이 될 것이다.

2부에서는 보살핌과 치료자로서의 자연, 그리고 발견자와 창조자로서의 노인과 아이의 순수함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공생한다는 의미를 알아볼 것이다. 이는 인간이 얼마간 잊고 있었던 공생의 가치를 문학적 상상력 속에서 제시하는 장(章)이 될 것이다. 공생의 가치는 휴머니즘의 기존 개념이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연계된다.

3부에서는 죽음과 탄생, 소멸과 생성, 이별과 만남이 자연의 순환성과 함께 한다는 점을 다각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자연의 순환성은 인위적인 차별과 계급이 무효화되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담보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라는 인식에서 해방되고, 또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고 그 현존들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끊임없이 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II. 본 론

1. 소외

“소외라는 말은 헤겔(Georg W.F. Hegel, 1770-1831)이 『정신현상학』 2)에서 철학적으로 체계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³⁾

소외(疎外·疏外)는 단절, 무력, 무의미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단절이 주는 의미에서는 통합되지 못하는 느낌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울리지 못하여 거리를 둔 상태로써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외라는 단어는 보통 인간이 속한 관계에 준하여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브리엘 루아의 소설을 통해 자연도 상처받고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계화로 인해 황폐해진 자연환경이 아닌 가브리엘 루아의 자연예찬론이 가미된 소외의 개념으로써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노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함께 노인이 노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소외라는 주제와 결부되는지 ‘위기의 노인’에서 알아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소수 이주민의 아이들이 겪는 문화적·언어적 혼란이 가브리엘 루아가 겪었던 유년시절의 기억과 맞물려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외로운 아이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정신현상학』에서 헤겔은 ‘entäusserung(말 그대로 자기외부화 혹은 자기포기)’와 ‘entfremdung(疎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신이 객관성 영역에서 자신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을 표현했다.” 마르셀로 무스토, 최용찬 역, 『마르크스 소외개념에 대한 재논의』, 마르크스주의 연구=marxism 21, 제8권 제2호, 2011년 여름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p.86.

3) 오창호, 『사회심리와 인간소외』, 푸른사상, 2005, p.170.

1) 상처받은 자연환경

『내 생애의 아이들』⁴⁾을 통해 가브리엘 루아가 드러내고 싶은 자연환경은 척박하고 황량한 공간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기계가 부수어 놓은 황폐한 공간이 아닌 아직 인간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아 개척되지 않은 황무지이다. 황무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서 연구자는 인간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아 제멋대로 형클어져있는 땅은 과연 버려진 땅인가 아닌가에 관하여 고민하였다. 그래서 이끌어낸 기준이 생명중심인가 인간중심인가에 관한 이분법적 관점에 준하였음을 밝혀둔다. 흔히 미개지란 버려지고 쓸모없는 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인간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하여 그곳에 생명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브리엘 루아의 소설 중 『내 생애의 아이들』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자연은 그녀의 다른 소설들에 비하여 척박하고 광활하며 원시적인 느낌이 드는 공간이다.

마을이라고 해봐야 대부분 페인트칠도 하지 않은 나무로 지은 것이어서 완공하기도 전에 벌써 황폐해져 버린 집들, 이웃 마을과 그 마을의 너무 부티 나는 교회에 대한 대항의식 때문에 지었던 작은 예배당이 전부였다. (EV. p.119)

4) 가브리엘 루아가 『내 생애의 아이들』을 세상에 내놓은 것은 그녀의 나이 68세였던 1977년의 일이다. 소설로는 마지막 작품이었던 『내 생애의 아이들』은 발표하자마자 비평계의 호평을 받은 것은 물론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캐나다 총독상을 수상하였다.

Gabrielle Roy, *Ces enfants de ma vie*, Boréal, 1993 이하 본문 인용문에서는 CEV로 약칭한다. 번역본은 『내 생애의 아이들』, 김화영 번역, 현대문학, 2006은 EV로 약칭하여 쪽수만 표기한다.

Gabrielle Roy, *La route d'Altamont*, Boréal, 1993 이하 본문 인용문에서는 RA로 약칭한다. 번역본은 『전지전능한 할머니가 죽었다』, 이소영 번역, 이덴슬리벨, 2012는 R로 약칭하여 쪽수만 표기한다.

la plupart en bois non peint, décrépite avant d'être finies, avec sa petite chapelle que l'on avait construite dans un esprit d'antagonisme contre le village voisin et sa trop riche église. (CEV. p.81)

마니토바 (州)는 당시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혼재하여 이루어낸 “모자이크문화”⁵⁾였기 때문에 이주민 각자의 소외감과 외로움은 때로는 서러움으로 표상되기도 한다.

사실 그쪽에는 우리 사회에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닌 진짜 러시아 사람들보다는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출신의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타향살이의 설움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다른 이민자들보다 그들은 거기에서 더 외롭게 지내고 있을 것이었다. (EV. p.94)

Au vrai, il y avait là des Polonais ou des Ukrainiens plutôt que des Russes à proprement parler qui ne furent jamais nombreux dans notre milieu. Ils devaient donc y être plus seuls encore que d'autres immigrants qui se mettaient au moins à quelques-uns pour partager l'exil. (CEV. p.63)

이러한 소외감과 외로움은 공동체적 의식 또는 정체성의 부족으로 이어져 그들이 거주하는 마을 전체의 분위기에 대한 묘사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 해에 내가 부임한 학교는 말하자면 마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다. 비록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 상당히 넓은 들판이 사이에 가

5) 김인경, 「가브리엘 루아와 혼종공간 『내생애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l'entre-deux'의 표상」, 한국불어불문학회, 2011, p.46.

로놓여 있어서 심지어 마지막 몇 채의 집들과도 한참 떨어진 채 마을 한쪽 끝에 처져 있기는 해도 말이다. 것처럼 외따로 떨어져 있어도 나는 가난한 집 몇 채가 고작인 그 쓸쓸한 마을에 속해 있는 것이었다. (EV. p.119)

L'école où je fus nommée, cette année-là, faisait partie, si l'on veut, du village, quoique attardée tout au bout, séparée même des dernières maisons par un champ assez vaste où paissait une vache. Malgré l'écart, il n'y avait pourtant pas de doute que j'appartenais au village triste avec ses pauvres maisons. (CEV. p.81)

외딴 마을의 쓸쓸함과 고즈넉한 분위기는 이주민들의 외롭고 소외된 마음을 대변하는 듯 광채 없고 구슬프며 생기 없이 먼지만 많은 길⁶⁾로 묘사되고 있다. 루아는 그녀의 소설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녀가 문자로 그려내고 있는 풍경들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한 착시현상에 빠져들게 만듦으로써 독자는 그녀가 하는 이야기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상상하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사실 그쪽에 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의 지붕도, 광도, 심지어 대풍년은 들었으나 팔 곳이 없어 재고가 많을 때 평원 지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조그만 밀 창고들마저 눈에 띄지 않았다. 오로지 보이는 것이라고는 약간 높아지는 듯싶은 오르막 흙 길 한 토막뿐인데 그 길은 조금 굽이돌다가 곧 끝 간데 없는 지평선 저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그러니 오직 하늘과 지평선의 질푸른 빛과 대조를 이루는 검고 기름진 흙의 고원이 전부였다. (EV. pp.120-121)

6) “나무 한 그루 없고 거의 언제나 바람만 제멋대로 휩쓸고 지나갈 뿐인 그 음산한 비포장대로는 대공황 첫째 캐나다 서부의 거의 모든 마을들의 길이 그러했듯 구슬프고 먼지 많은 길이었다.”(EV, p.120)

Au fond il n’y avait pourtant par là rien à voir. Ni toit de maison, ni grange, ni même de ces minuscules greniers à blé comme il y en eut partout dans la plaine au temps des trop abondantes récoltes qui ne s’écoulaient pas. Seulement un bout de route de terre qui s’élevait légèrement tout en tournant un peu sur lui-même et aussitôt se perdait dans l’infini. Rien donc que le ciel, un épaulement de riche terre noire contre ce bleu vif de l’horizon. (CEV. p.82)

그녀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인물이 누구이던가에 상관없이 자연은 그들 사이의 관계와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이 논문의 첫 번째 주제로써 언급하고 있는 '소외'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때 '타인으로부터 배제된 상태'라고 연구자는 정의해 보았다. 여기에서 타인이라는 인간을 말하며 배제된 대상은 자연이다. 루아의 소설에서 묘사되고 있는 자연은 그야말로 거대하고 광활하여 그 끝이 하늘과 맞닿아 사라질 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물체에 끝닿아 본적 없는 무한한 공간이다. 측량조차 불가능한 이 거대한 존재를 인간이 소외시켰다는 제안은 다시 말해 '인간(이주민)은 자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바꿔 정의해 볼 수 있다.

"자연, 자연이라고! 그런 건 알 바 없어요! 내가 바라는 건 교육입

7) “소외 개념의 다의성은 어원, 영어의 ‘alienation’이나 불어나 독일어인 ‘aliénation’과 ‘entfremdung’, 라틴어의 ‘alienatio’에서 살펴볼 수 있다.”(장병호, 『소외문학 갈등의 문학』, 시와 사람, 2008 P.39 참조)

“소외는 주로 세 가지의 의미를 담아 사용되고 있다. 첫째, 법적인 면에서 재산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이전한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 심리, 의학적으로 정신적 감각, 심신 등의 상실 등과 관련한 정신혼란을 뜻하며 셋째로는 사회적 영역에서 다른 사람, 소속된 집단,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박승위, 『현대사회와 인간소외』, 영남대학교출판부, 1996, P.29 참조)

니다. 메데릭이 그렇게 재능이 있다면 왜 반에서 일등을 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거죠?" (EV. p.220)

- La nature, la nature! Je m'en moque!
Ce que je veux c'est de l'instruction. Si Méderic est si doué pourquoi ne me donne-t-il pas la satisfaction d'être premier de classe? (CEV. p.150)

자연이 인간의 관심으로부터 배제되었다고 해서 그 고유한 질서의 흐름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 메마르고 갈라져 쓸모없이 나뒹구는 황폐한 대지에도 바람을 타고 씨앗이 뿌러지고 비와 태양의 기운을 받아 열매가 맺힌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생태계의 질서이자 희망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토록 젊은 고장에서 어찌하여 희망은 그 인적 없는 황량한 공간들과 기막힌 침묵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었을까? (EV. p.121)

Pourquoi dans un pays si jeune l'espoir nous vient-il des espaces déserts et du merveilleux silence! (CEV. p.82)

루아는 인적 없고 공허하며 황량하기까지 한 침묵의 장소를 일컬어 '젊다'라고 표현을 하였다. 게다가 그에 더하여 '그 젊은 고장으로부터 희망이 찾아온다'8)라고 말하였다. 루아가 그녀의 책을 통하여 그리고 이 모호한 표현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연이라는 공간과 인간 본연의 때 묻지 않은 관계에찬이 아니었을까.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무심하게

8) cf. EV. p.121.

갈라져 있는 땅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대지의 모습이다. 그곳은 황량하고 척박하여 걸을 때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메마르고 가파른 공간이지만 그 곳엔 매일 쉬지 않고 그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내리는 아이들이 있다. 미개지에 희망의 씨앗을 뿌릴 그들은 바로 자연의 순수함과 가장 닮아있는 아이들인 것이다.

사실 내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은 그 미개지 쪽에서 오고 있었다. (EV. p.121)

Il est vrai, plus de la moitié de mes élèves venait de ce côté sauvage et comme inhabité. (CEV. p.82)

언뜻 보기에 방치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구슬픈 이곳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루아식의 자연예찬이 조심스럽게 울려 퍼져 나온다.

루아의 작품은 자연 그대로인 곳, 황무지에 놓여있던 “하찮은 ‘돌맹이’ 하나에서 ‘우주의 고요’를 떠올리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세계와 결합시키는“ 미세 상상력이다. 작가의 미세 상상력 속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긴밀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윤리일 것이다.”⁹⁾

2) 위기의 노인

늙는다는 것은 흐르는 시간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늙는다는 것은 죽음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누구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체기능이 저하되

9) 이찬규, 「가브리엘 루아와 장소의 생태적 상상력」, 한국연구재단연구계획서, 2010, p.10, 참조.

고 얼굴에 주름이 한 줄 더 늘고 흰머리가 늘어갈수록 노인들은 과거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더해져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을 자주 회상하며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짐과 동시에 다가오는 죽음을 외면한 채 삶에 대한 욕망이 더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소설에 그려지는 늙어가는 신체의 외면적 변화는 주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짙어 현실적으로도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작용하여 이들을 “사회적 소외, 문화적 소외, 경제적 소외라는 중층적 소외”¹⁰⁾를 겪게 하고 있다.

또한 노년이라는 인생의 한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는 가장 가까운 관계와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시작된다. 비생산적이며, 무능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부정적 이미지가 주는 사회적 인식은 엠마(크리스틴의 엄마)가 생틸레르 영감을 두고 읊조리듯 하는 말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가엾은 생 틸레르 영감님. 평생 동안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 아무도 돌봐 주지 않는 처량한 신세가 되셨구나.” (R. p.66)

- *Pauvre monsieur Saint-Hilaire, fit-elle, après avoir élevé une famille, le voilà quand même à peu près tout seul au monde.*
(RA. p.47)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은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신체적 활동이 감소되고 근력이 감소하게 되는데 아래 내용에서는 근력저하로 인해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로서의 노인이 묘사되고 있다. 게다가 딸이 엄마를 부르는 호칭을 ‘노인네’라고 칭하면서 노인의 존재를 더욱 폄하시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감각기관의 노화로 인한

10) 황지영, 「인쇄광고에 표상된 노인모델의 이미지 : 기호학적 접근」, 광고학 연구 제 13권 2호, 2002, p.51.

변화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곧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네가 집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더는 못 견디겠단니까. 지하 창고에 내려가려고 뚜껑 문을 잡아당기다가 쿵, 하고 넘어지면 어떡해. 엉덩이 뼈라도 빼끗하면 창고 속에 갇혀 버릴지도 모르잖니. (R. p.30)

«Embardeuse» comme elle est, je ne vis plus, disait-elle, de la savoir seule dans sa petite maison solitaire. Elle pourrait, en tirant cette trappe qu'elle a pour aller dans sa cave, y tomber et y rester, une hanche disloquée. (RA. p.23)

또한 나이가 들면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상실은 물론 역할의 상실감까지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생산적인 활동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하여 노인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게 됨과 동시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여 노인 자신이 갖는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구나. 짐짝이나 다름이 없어..... 저 멀리 훌쩍 떠나면 좋으련만...” (R. p.44)

- Plus bonne à rien... à la charge... voudrais m'en aller... (RA. p.32)

노인은 다른 연령과 비교하여 비슷한 욕구를 지닌다고 한다. '노인들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결핍동기 이를테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며 성장 동기 즉, 자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진다. 여기에서 자아실현의 욕구는 살아있음을 실감하고 싶은 욕구이다.'¹¹⁾ 노인은 젊은이

와 같지는 않으나 노인 역시 젊은이와 다름없는 욕구가 있는 것이다. 늙었지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노인의 모습에서 약함을 감추기 위해 호통을 치거나 과장된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작품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화를 버럭 내며 당장 일감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다.

“일감이라고요?” 어이없다는 듯 엄마가 물었다. “일이라면 평생 지겹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엄마는 가장자리를 집어 감칠 냅킨이며 수건 몇 장을 찾아와 할머니에게 건넸다. (R. p.41)

Mais un jour elle se fâcha et demanda de l'ouvrage.

- De l'ouvrage, dit maman. N'en avez-vous pas assez fait dans votre vie?

Mais elle lui donna quand même quelques serviettes à ourler.
(RA. p.30)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자신을 칭하는 이름이 있다. 그리고 이름 외에 나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호칭이 있어서 사회적 존재로서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그 호칭을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 학생, 아주머니, 부인, 아저씨, 선생님,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등이 있는데 때로는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떤 호칭을 붙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 상승되기도 하고 폄하되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이거나 존재감이 상실된 사람에게는 격이 낮은 호칭을 사용하여 그 존재를 더욱 가볍게 느끼도록 만드는 경우가 소설 속에서도 빈번히 사용된다.

11) *Ibid*, p.54, 참조.

“저 가연은 노인네¹²⁾는 고지식한데다, 나도 이 점이 걱정스럽긴 한데, 꼬장꼬장하기까지 하니 가족과 함께 살기에 그리 수월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지.”

나는 몸을 뒹 돌려 엄마를 찌려보았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따위로 묘사하는 사람을 ‘나의 좋은 친구 생 툴레르 할아버지’로 받아들이란 말인가? (R. p.67)

- Peut-être, dans les circonstances, est-ce meilleure solution, reconnutmaman, vu que le pauvre homme demeure si entier dans ses opinions et est, je le crains, de caractère tranché et autoritaire, peut-être pas très commode à vivre.

Je me tournai avec défi vers ma mère. Cet homme-là qu’elle décrivait, pensait-elle donc que je l’accepterais pour mon bon vieux monsieur Saint-Hilaire? (RA. p.47)

위에서 지적한 호칭의 문제가 다음 문장에서는 더욱 확연하게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인물이지만 때에 따라 신사 같고 당당한 노인에게는 이름과 더불어 ‘생 툴레르 영감님 (monsieur Saint-Hilaire)’라는 존칭을 사용하여 존중의 의미를 담았으나, 어둠이 깔린 쓸쓸한 길거리를 외롭게 어슬렁대는 그에게는 ‘불쌍한 노인네 (petit vieux)’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호칭만으로도 소외된 늙은이를 상상하도록 표현하였다.

하지만 엄마는 신사 같고 당당한 가장이던 생 툴레르 영감님과 어스름이 깔릴 즈음 누군가를 찾는 듯 우리가 아는 그 길에서 홀로 어슬렁대는 저 불쌍한 노인 사이에는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R. p.67)

Mais qu’il y avait loin, conclut-elle, du monsieur Saint-Hilaire

12) 본 논문의 인용문의 밑줄은 논문의 연구자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그은 것이다.

d'autrefois, seigneur et maître chez lui, à ce petit vieux se promenant tout seul, à la «brunante», comme s'il cherchait quelqu'un... dans notre rue... (RA. p.47)

"노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는 매우 이중적이어서 노인들은 미덕을 갖춘 본보기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현자이기를 원하는 동시에 노인들이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 동일한 욕망이나 감정, 성, 물질적, 정신적인 요구 등에 대해서는 추하거나 우스꽝스럽고 가소로우며 혐오스럽다고 여긴다."¹³⁾

인간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할 때의 태도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해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인간관계는 물론 사회가 개인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현대처럼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젊은 세대조차도 사회의 변화 흐름을 놓치기 쉬운 이때에 급격한 사회변동은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인 세대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노인의 권위를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하며 소외감에 상실감마저 안겨준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노년은 죽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유년층, 청년층, 장년층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시간, 또 다른 창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¹⁴⁾

3) 외로운 아이

13) Simone de Beauvoir, 『노년』, 홍상희·박혜영 옮김, 서울: 책세상, 2002, p.65.

14) 김윤선, 『한국 현대 소설에 나타난 인간갈등 - 가족 문제를 중심으로』, 인간연구, 제 8호, 2005, pp.128-131, 참조.

노인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아이에 대한 시각 역시 작품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 생애의 아이들』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주민 노동자들의 아이들이다. 루아의 소설이 대부분 자전적 기록이라는 사실은 본 논문의 서론 초입부분에서 간단하게 언급한바 있다. "영어권 캐나다의 프랑스어 사용지역인 가난하고 작은 마을 생-보니파스에서 태어난 가브리엘 루아는 어린 시절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영어권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늘 열등감과 소외감으로 고통 받았다."¹⁵⁾ 이주민 노동자들의 아이들이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를 배우고 혼란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에 빗대어 불어권 가정에서 성장하여 영어를 사용해야 했던 루아의 혼란스러운 유년시절의 기억이 그녀의 작품 곳곳에서 드러난다.

내가 맡은 이민자 출신 꼬맹이들 중 몇몇의 경우, 그에 더하여 학교에 오자마자 귀에 설기만 한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는 혼란스러움까지 맞보아야 했다. (EV. p.9)

Chez quelques-uns de mes petits immigrants, le désarroi, en y arrivant, de s'entendre parler dans une langue qui leur était étrangère. (CEV. p.9)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환경은 두렵고 피하고 싶기 마련이다. 생김새에 언어까지 모두 다른 낯선 곳으로 내딛는 첫발이 된 학교에서 아이는 온몸으로 그곳을 거부하는데 모국어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완강한 거부를 나타내고 있다.

15) 오정숙, 「퀘벡 작가 가브리엘 루아의 자서전 『비탄과 환희』에 나타난 유년기 이야기」, 『불어불문학연구』 제 80집, 2009, p.729.

아이는 제 아버지에게 매달린 채 온통 눈물에 젖은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다. 짐작컨대 아이는 그들의 모국어인 이탈리아말로 아버지에게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비나니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고 애원하고 있는 눈치였다. (EV. p.13)

Le petit, cramponné à son père, levait vers lui un visage inondé de larmes. Dans leur langue italienne, il le suppliait, à ce qu'il me parut, de ne pas l'abandonner, par la grâce du ciel de ne pas l'abandonner! (CEV. p.11)

『내 생애의 아이들』에서 이 소설을 구성하는 주 무대는 학교이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며, 이들의 외로운 처지만큼 학교를 에워싼 자연환경 역시 황량하고 척박하며 광활한 평원이다.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아이들이 모여드는 곳, 낯선 땅에 내딛는 첫발이 되는 곳, 그 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여교사 역시 그들에게는 이방인이다.

나는 한 줄기 작은 오르막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거기에, 아이들이 하늘 저 밑으로 가벼운 꽃장식 띠 같은 모양을 그리며 하나씩 하나씩, 혹은 무리를 지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매번 나는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광대하고 텅 빈 들판에 그 조그만 실루엣들이 점처럼 찍혀지는 것을 볼 때면 이 세상에서 어린 시절이 얼마나 상처받기 쉽고 약한 것인가를,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우리의 어긋나버린 희망과 영원한 새 시작의 짐을 지워놓는 곳은 바로 저 연약한 어깨 위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감하는 것이었다. (EV. p.122)

Je ne quittais pas des yeux la petite montée solitaire de la route où je les verrais apparaître un par un ou en groupes qui dessineraient une frise légère au bas du ciel. Chaque fois j'en étais émue. Je voyais poindre ces minuscules silhouettes dans l'ampleur de la plaine vide et je ressentais profondément la

vulnérabilité, la fragilité de l'enfance en ce monde, et que c'est pourtant sur ces frêles épaules que nous faisons porter le poids de nos espoirs déçus et de nos éternels recommencements. (CEV. p.83)

공간이 주는 황량함과 쓸쓸함을 점점이 채워가는 것은 나무도 꽃도 들판의 곡식도 아닌 아이들의 실루엣이라고 작가는 표현하고 있다. 미개지를 개척하고 황무지를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야 할 어린 그들의 연약한 어깨와 발걸음은 마치 그들의 부모가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대신 찾아오기라도 하려는 듯 한줄기 작은 오르막길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를 오가는 아이들의 집은 대부분 학교 반대편에 있다. 두어 시간 가량 거친 길을 오르내리는 동안 광대한 평원만이 펼쳐져 있을 뿐 그들의 농가와 집은 외따로 떨어져 있다. 인적이 드문 그곳에 사는 아이들의 소외된 외로움이 여교사와의 하교 동행 길 대화에서 고스란히 묻어난다.

"아마 세상 끝에 살고 있어서 너무 심심하니까 그렇겠지 뭐." 루시엔느는 내가 저의 생각에 속 시원히 맞장구를 쳐주지 않는 눈치이자 기분이 상한 표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가시 돌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더 외롭게 사는 걸요" (EV. p.136)

- C'est peut-être qu'elle s'ennuie si seule au bout du monde.
Lucienne prit un air affensé parce que je n'avais pas l'air de partager complètement ses idées et continua sur un ton pointu :
- On est encore plus seuls nous autres. (CEV. p.93)

자연은 언제나 평화로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외딴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연은 그들의 벗이고 가족이며 보호자이다. 학교가 끝난 오후, 쓸쓸한 들판을 지나는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던 태양은 이미 핏빛으로 하늘

을 물들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산 뒤로 넘어갔을 때 피로 물들었던 그 하늘은 검붉게 변하여 더 이상 그들을 지켜줄 수도 보호해줄 수도 없게 된다. 해가 지는 광경을 마치 피를 흘리며 산 뒤로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을 태양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또한 보호자로서, 안내자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것과 같다.

"해가 죽었구나!" 하고 갑자기 어린 루시앵이 탄식하듯 말했다. 지평선 저 뒤로 해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운 듯 쳐다보고 있던 그 아이는 내게 몸을 꼭 붙이고 슬픔에 떨었다.

그때 나는 저 어린 아이들이 해가 넘어가는 시간에 저희들끼리 저 얼마 안 되는 몇 그루 나무들 - 그들의 눈에는 숲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 속을 통과할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상상해보았다. (EV p.137)

- Le soleil est mort! s'écria tout à coup plaintivement le petit Lucien qui en avait guetté la chute derrière l'horizon avec appréhension et vint se serrer contre moi en tremblant de tristesse.

J'imaginai alors ce que devaient ressentir ces tout petits enfants quand ils traversaient seuls le léger bois - qui à leurs yeux était peut-être une forêt - à l'heure où mourait le soleil. (CEV. p.93)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칭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지는 것조차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이다. 거대한 자연에 비하여 점보다도 작은 인간, 그보다 더 여리고 작은 아이들에게 죽은 태양이란 방향성을 잃은 것과도 같다. 산꼭대기에 걸려있던 태양은 그들의 귀가 길을 돕는 안내자였고 아이들은 그 햇빛을 의지해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이 안식처에 도착하기 전에 해가 먼저 산 뒤로 숨어버리는 날이면 마치 엄마를 잃은 아이들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몸을 떨며 한없는 슬픔에 젖는다. 집이라는 안식처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던 빛이 사라짐으로 인해 그들은 오로지 감각에 의지하여 길을 가야만 하는 고립되고 외로운 존재들이다. 하늘도 대지도 죽어버린 검은 세상에 이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아이가 그들의 안식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저 깊은 어둠을 뚫고 계속 나아가야만 한다.

내 눈에 그는 이제 거의 다 어두워진 저녁 속에서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그의 두 어깨가 다시 축 처져 있었다.

"애, 앙드레!" 하고 내가 말했다.

그가 뒤를 돌아보았다.

"너희 집은 아직 더 멀리 가야 되니?" (EV. p.140)

Il me parut effroyablement seul dans cette fin de jour presque sombre maintenant. Ses épaules s'étaient de nouveau affaissées.

- Hé André! criai-je.

Il se retourna.

- C'est loin encore pour toi? (CEV. p.95)

태양이 지고 난 후 밀려오는 어두움은 순식간에 두렵고 고독하며 외로운 공간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것은 슬픔과 동시에 사라진 희망을 상징하기도 한다.

기대할 것이 없는 고단한 이주 노동자의 삶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밤이 생성되고 있노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¹⁶⁾

16) "그쪽은 모든 것이 평원에서 다른 곳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마치 밤이 그곳을 통해서 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EV, p.140)

『내 생애의 아이들』 속에 등장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어린 아이들은 가난과 외로움, 낯선 환경과 낯선 언어 등 어린 나이에 비하여 짊어져야 할 어깨의 짐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다. 아무도 일귀널 생각조차 하지 않는 저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도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 씨앗이 뿌려지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존재하듯 환경이 주는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아이들은 마치 그 고통은 처음부터 그들의 것이었다는 걸 알기라도 하듯 꺾꽂하게 언덕을 오르고 있다.

“인간이 현실에 눈을 뜬다는 것은 이성의 힘이 강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니체는 어린 아이를 인간 정신이 실현되는 마지막 도달점으로 보았다.”¹⁷⁾ “그에게 있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원초적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이며, 이성의 힘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는 기존의 가치 질서와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원초적이고 순수한 세계의 주인공이다.”¹⁸⁾ 원초인 순수함을 어른이 되어서까지 간직 할 수 있다면 그보다 기쁘고 행복할 순 없겠지만 현실은 인간을 가만두지 않는다. 이것 또한 삶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가브리엘 루아가 그녀의 작품을 통하여 묘사하고 있는 이주민의 아이들은 그들의 연약한 어깨위에 드리워진 삶의 무게로 인하여 자연의 순리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삶을 알아가는 아이들이다. 거기에 더하여 사춘기를 지나 이제 막 어른의 세계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려는 메데릭의 어른에 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대견스럽다기 보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루아는 그녀의 소설을 통해 자문하듯 고백하고 있다.

성인 속에 아이가 되살아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인데 비하여, 어찌하여 어린아이의 얼굴 속에 성인의 모습이 배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리도 가슴을 아프게 한단 말인가? (EV. p.255)

17) 진중권,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휴머니스트, 2005, p.7.

18) *Ibid*, p.110.

D'où vient que l'on a tant de peine à voir transparaître l'homme dans un visage d'enfant alors que c'est la plus belle chose du monde que de voir revenir l'enfant chez l'homme? (CEV. p.174)

2. 공생, 생명의 어울림

공생이라는 말은 앞에서 다룬 소외의 개념과 정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소외가 관계의 단절을 의미했다면, 공생은 관계에 대한 긍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쪽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둘이상의 관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성을 지닌 관계로 해석된다. 이것은 가브리엘 루아의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는 생명중심적 사고와 연관이 깊다. 생태계와 인간이 공존, 공생함으로써 원시적인 생명력의 복원을 추구하며, 모든 생물체의 생명존엄성을 인정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과학이나 의학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정신과 육체의 고통을 대자연 속에서 치유 받는 것, 그리고 위기의 노인과 외로운 아이가 서로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발견을 안겨주는 것은 생명의 어울림 즉, 공생의 의미로써 부합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다.

1) 보살핌과 치료자로서의 자연

개념적인 측면에서 '자연(Nature)'은 "사람이나 사물의 고유한 성질"을 뜻하며, 그 고유성이 파괴된 "인위적 인공물과 구별되는 의미"¹⁹⁾로 사용된다.

인간은 처음부터 자연과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왔다.

19) 오춘란, 「자연형태와 예술적 형상의 비교」, 『새한철학회 논문집』, 2000, p.139.

자연은 모든 만물의 뿌리이며 현실의 복잡다단한 세계와 대비되는 안식처의 의미로 존재한다. 그렇기에 인간에게 있어 자연은 어머니의 포근한 품처럼 언젠가 돌아가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어왔다.

자연 생태계에는 기본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관계와 서로 돕고 서로 도움 받는 상호관계가 자연적으로 맞추어질 때 비로소 공생이 가능하다.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현대인에게 어느덧 꿈같은 일이 되어버렸다. 자연은 가까이 있는듯하지만 자연과 함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은퇴 후어나 꿈꾸어볼 수 있는 먼 일이며 기계의 힘을 빌려 보다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자연이라는 집이 어찌면 조금은 불편한 장소라고 느껴지기도 모를 일이다. 기계에 의존하고 화학적 재료에 희열을 느끼던 인간이 결국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문명으로부터 상처받고 소외당하며 병이 들었을 때 찾는 곳은 자연의 품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결코 왜 왔느냐고 묻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껴안아주는 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가브리엘 루아의 장소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태학적 전망은 인간들끼리, 또한 자연과 인간이 “서로 놓아버리지 않고 사는” 관계에 대한 복원을 추구한다.”²⁰⁾

인간은 결국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얻게 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자연 자체가 주는 신비로움과 즐거움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할 때에 비로소 삶의 기쁨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 복잡한 현실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 자연을 찾았을 때의 편안함은 정신적으로 자유를 주고 이러한 해방감은 육체의 곤고함마저 치유하기도 한다.

20) 이찬규, *op. cit.*, p.9.

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자 구속에서 풀려난 아이의 모습이 되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V. p.192)

Du moment qu'il avait commencé à parler des collines, j'avais vu apparaître un enfant délivré, à l'aise, respirant à fond. (CEV. p.129)

『내 생애의 아이들』의 마지막 이야기인 '찬물의 송어'에 등장하는 메데릭은 학교에 매일 등교는 하지만 공부보다 자연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사춘기 소년이다. 메데릭의 등장은 루아가 그녀의 소설 속에서 반복해 언급하고 있는 광활하고 적막한 평원을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놓는 인물이기도 하다.

작은 아이건 큰 아이건 모두가 평원 저 멀리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어떤 하얀 점 하나에 눈을 박고 있었던 것이다. 나 역시 그들처럼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 하얀 점이 검은 갈기를 휘날리는 말로 변했다. 이내 나는 말안장 위에 거의 엎드리듯 자세를 낮추고 이미 광란 상태인 말을 더 빨리 달리도록 정신없이 몰아치는 젊은 기사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머리 뒤편에 걸린 큼직한 카우보이 모자는 자세히 볼수록 일부러 거칠게 다루어 찌부러진 몰골이었다. 나는 곧 그게 메데릭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이들 못지않게 그 요란한 도착 광경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EV. pp.170-171)

Petits ou grands, ils avaient tous les yeux rivés, au loin de la plaine, à un point blanc qui approchait rapidement. Je fis comme eux. Le point blanc devint cheval à crinière noire. Et bientôt je distinguai, presque couché sur le dos de sa monture, un jeune cavalier qui, à gestes emportés, stimulait l'allure déjà forcée de la fouguese créature. Il portait à l'arrière de la tête un immense chapeau de cowboy qui, lorsque je le vis de plus près, me parut cabossé et malmené à dessein. Autant que les enfants j'étais

accaparée par la spectaculaire arrivée, ayant tout de suite compris qu'il s'agissait de Médéric. (CEV. p.116)

광대하지만 조용하고 침묵을 지키던 거대한 공간이 메데릭의 등장으로 인하여 비밀처럼 감추어져있던 생명의 자연으로 수줍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자연은 지난번 아이들과 동행했던 하교길에서 뤼시앵을 탄식하게 했던 죽은 태양과는 반대로 인간을 위로하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자연이다.

그때의 정경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지금도 여전히 그 정경의 추억을 맞아들이려는 듯 내 영혼이 고즈넉하고 행복한 느낌과 함께 넓게 펼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어떤 높은 곳에서 목도하게 되는 그런 풍경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기에 우리에게 그토록 커다란 만족감을 주는 것일까? 그 풍경을 획득하기 위하여 치른 고생이 그만큼 보상을 주는 것일까? (EV. p.201)

Comment en oublierais-je la vision? Encore aujourd'hui, pour en accueillir le souvenir, mon âme s'élargit d'aise et de bonheur. Qu'y a-t-il dans le spectacle que l'on obtient d'une certaine hauteur pour tant nous satisfaire? Est-ce d'avoir peiné pour le conquérir qui lui donne du prix? (CEV. p.136)

낮은 곳에서 위로, 혹은 평면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는 시선에는 더 넓고 광활한 풍경이 펼쳐진다. 그리고 그 광대함이 더욱 장엄하게 펼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풍경을 하나로 이어주는 공간은 마치 자연의 무한한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로 통합되어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풍경의 끝을 따라가다 보면 시야는 점점 더 아득하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공간은 광활하게 뻗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아우르며 그 품

에 이 모든 것을 안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 자연은 자기를 소외시켰던 인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포근하게 안아준다. 그리고 그것은 신기한 공감 속에서 오는 결속으로 서로를 이해하는데 더 이상 몸짓도 말도 필요 없게 되는 하나의 발견이 된다.

이상하게도 바로 그 다음, 우리는 아무 말이 없게 되었다. 심각하기까지 했다. 각자 우리를 결속시켜주는 풍경에만 신경을 썼다. 거대하고 자유로운 공간이 다 그렇듯, 그 공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것은 삶, 우리들의 미래,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갖게 된 얼굴에 대한 꿈속 같은, 그러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었다. (EV. p.203)

Curieusement, tout de suite après, nous sommes devenus silencieux. Graves aussi. Et attentifs chacun pour soi au paysage qui nous unissait. Comme tout espace grand et libre, ce qu'il nous inspirait devait être une confiance rêveuse et pourtant inébranlable envers la vie, ce que nous deviendrions, le visage que nous acqueririons avec le temps. (CEV. pp.137-138)

자연은 인간의 본연의 본성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순수하고 원시적인 공간이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이 주는 산소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자연을 지배하려하거나 아예 자연의 생명력을 무시하고 그 존재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의심 앞에서도 자연은 언제나 변함없이 있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볼 뿐이다.

의심이 많은 나는 여전히 한동안 그렇게만 생각하며 물속을 더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반쯤 벌린 내 손 안에서 뭔가 조그맣고 미끄

러운 것이 어렴풋하게 꿈틀했다.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였다. 게다가 내가 가볍게 손을 오므려도 그것은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 손 안에 잡힌 그것은 손가락들 사이에서 재미있다는 듯이 이리저리 몸을 뒤집고 있었다. 나는 메데릭과 똑같은 황홀감 속에 빠져들었다. (EV. p.205)

Sceptique, c'est ce que je crus un moment encore! Puis, tout à coup, dans ma main à moitié ouverte, s'insinua une petite créature glissante, douce, ondulante, à coup sûr bien vivante. Qui d'ailleurs ne chercha pas à fuir quand je refermai légèrement la main sur elle. Captive, elle semblait prendre plaisir à se tourner et retourner entre mes doigts. J'entrai dans le même ravissement que Médéric. (CEV. p.139)

루아의 소설에서 가장 감동이 큰 이야기 「찬물의 송어」는 자연의 광활함과 변화무쌍함이 메데릭의 질풍노도의 시기와 조화를 이루며 소설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고 있다. 메데릭은 앞에서도 잠시 소개했듯이 여교사가 가르치는 학생 중 나이가 제일 많은 소년이다. 사춘기에 접어든 소년은 여교사에게 연정을 느끼기도 하고 특유의 반항적 행동을 보이곤 하지만 그가 가장 마음을 열고 순한 양처럼 평온해지는 곳이 바로 자연의 품이다. 굽이굽이 돌고 되돌며 좁은 골짜기로 여교사를 안내해 간 그곳에서 메데릭은 여교사에게 오롯이 인간을 믿고 있는 자연에 대한 황홀감을 느끼게 해준다.

우리는 다시 손을 물속에 담갔다. 송어들이 다시 찾아와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 턱 놓고 손 안에 들어왔다. (EV. p.207)

Nous avons remis nos mains à l'eau. Les truites sont revenues s'y prendre dans un abandon inexplicable. (CEV. p.140)

"이러한 사유 과정 속에서 가브리엘 루아는 거대 담론적 발상이나 명분론에서 벗어난 한 가지 윤리준칙을 끌어내고 있다. 즉 미물(微物)은 인간이 만든 세계관으로 규정된 무상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작가의 미세 상상력 속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긴밀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윤리일 것이다."²¹⁾

20세기 환경운동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식물학자이자 대체의학자인 스티븐 해로드 뷰너(Stephen Harrod Buhner)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빈자리가 있다. 식물들이 채워줄 수 있는 자리, 나무나 돌, 곰이 있어야 할 자리, 지구상에서 백만 년 동안 우리와 함께 진화해온 생명체들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자리. 이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짜리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결코 완전히 인간이 될 수 없으며, 치유될 수도 완전해질 수도,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 결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다."²²⁾ 라고 말했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길들이며(s'apprivoiser) 살아가는 공생의 관계라는 의미와 상통한다.

메데릭과 내가 쉽사리 잡히지 않는 그 작은 생명들을 우리와 함께 즐거워할 정도로 길들였다는,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기쁨을 맛보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EV. p.207)

Mais rien ne peut faire que nous n'ayons connu, Médéric et moi, la plus innocente des joies en croyant apprivoisées, se plaisant en notre compagnie, ces fuyantes petites créatures! (CEV. p.140)

21) 이찬규, *op. cit.*, p.10.

22) 스티븐 해로드 뷰너, 『식물의 잃어버린 언어』, 박윤정 역, 나무 심는 사람, 2005, p. 316.

공생이란 인간은 인간끼리, 자연은 자연끼리 비슷한 모양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닌 모양이 다른 서로가 함께 길들이며 부족한 것을 보태어주는 것이다.

스티븐 해로드 뷰너가 그의 책에서 “식물들은 그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생명 군락을 창조하고 유지한다. 나아가 모든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화학물질을 제공해주며, 병든 생물을 치유해주기도 한다.”²³⁾라고 하였듯이 진정한 생명의 어울림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사소하게 뻗어있는 풀잎 하나에도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든 자연 생태계를 생명중심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만 한다. 그것은 생명을 잉태한 언 땅을 겨울의 햇살이 품고 녹여 줌으로써 봄의 생명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월이, 그리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들이 왔다. 햇살이 강해졌다. 어느 날 오후 한 나절의 따뜻한 날씨만으로도 표면의 눈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EV. p.149)

Puis vinrent février et des journées d'éclatante beauté. Le soleil prenait de la force. Un après-midi de temps doux suffit à faire fondre la neige de surface (CEV. p.102)

2) 발견자, 창조자 노인

『알타몽으로 가는 길』에 나오는 할머니와 손녀, 동일한 책 속에 소재목으로 분류된 「노인과 아이」에서의 생 툴레르 할아버지와 크리스틴, 그리고

23) *Ibid*, p.240.

『내 생애의 아이들』의 종달새에 등장하는 널과 노인병동 속 노인들의 관계는 노인과 아이의 관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생태적 순환법칙 속에서 어떤 긍정적 순환 고리를 맺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인’과 ‘아이’는 사회적 시선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나약하고 비생산적이며 사회적 집단에서 배제된 존재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루아의 시선으로 들여다보았을 때의 노인과 아이는 더 이상 연민과 동정을 받는 상처 입은 존재가 아닌 긍정적이며 호의적이라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묘사해주고 있는 노인 혹은 노년에 대한 시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 노년에 관련된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은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내외적으로 부재한 실정이다. 간혹 분석이 이루어진 논문 중에서도 노년의 부정적 시각에 준한 연구임을 감안할 때 루아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노년의 삶은 노년의 고독이 묻어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사물이나 사람을 대하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화자인 크리스틴에게 각인되어 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손에서 일감을 놓아본 적이 없고 그의 손만 거치면 낡고 쓸모없는 물건도 생명을 얻어내는 전지전능한 하나님²⁴⁾과 동일한 인물이다.

나는 할머니의 숨씨에 감탄한 나머지 입이 떡 벌어졌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못 하는 게 없네요?” (R. p.19)

Je ne pouvais plus cacher mon émerveillement.
- Tu sais donc tout faire? demandai-je. (RA. p.15)

24) 번역자는 ‘하느님’으로 표기했지만,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는 번역을 포함하여 모두 ‘하나님’으로 표기함.

또한 무엇이든 알고 있는 박사님이며 불가능이란 없는 능력자임과 동시에 언제나 새로운 세계, 미지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안내자이기도 하다.

할머니의 비상한 두뇌와 기발한 솜씨, 그리고 창조에 몰두하는 그 어떤 도도하고 신비로운 고독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었다. (R. p.22)

Je devenais humble, très humble devant elle, devant la majesté de son cerveau, l'ingéniosité de ses mains, cette espèce de solitude hautaine et indéchiffrable de qui est occupé à créer. (RA. p.17)

『알타몽으로 가는 길』의 소제목 「전지전능한 할머니가 죽었다」에서 6살 무렵 여름, 크리스틴은 엄마에게 등 떠밀리듯 마니토바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 살고계시는 할머니 댁에 방문해 며칠간 할머니와 생활하게 된다. 덩치가 산만하고 청결과 규율을 강조하며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를 퍼붓는 할머니와의 따분한 생활에 괴로움을 느낀 크리스틴이 결국 울음을 터트리자 할머니는 크리스틴의 눈물을 그치게 할 요량으로 '예쁜이'라고 이름 붙인 인형을 만들어 주신다. 곱슬거리는 머리카락부터 밀짚모자까지 할머니의 손끝에서 창조되어지는 광경을 지켜보던 크리스틴은 마침내 인간을 흙으로 빚어내시던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과 인형을 만들어주시는 할머니를 동일시하기에 이르게 된다.

“할머니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할머니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만들 줄 알잖아요.” (R. p.26)

- Tu es Dieu le Père. Tu es Dieu le Père. Toi aussi, tu sais

faire tout de rien. (RA. p.19)

성경말씀 중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흠으로 인간을 빚으시는 장면²⁵⁾이 나온다. 오직 말씀으로 만물을 '있으라'라고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절대적이며 전능한 분인지를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흠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폐품을 이용해 이쁜이를 만들어주신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방식²⁶⁾과 기본적인 재료로 창조물을 만들어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어린 크리스틴에게 매우 신나고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쁨에 겨운 나는 손뼉을 짹짹 치며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다. 내 마음을 그토록 사로잡은 것은 분명 할머니의 창조적 재능이었으리라. 어디서든, 심지어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창조물에서라도 하느님이 내려 주신 이런 재능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면 내 가슴은 한없이 생생한 기쁨으로 가득 차올랐던 것이다. (R. p.20)

Je commençai à battre des mains, à trépigner d'une joie impossible à contenir. Sans doute était-ce le talent créateur de ma grand-mère qui me ravissait tant. Partout, en effet, où j'ai vu à l'œuvre ce don de Dieu, fût-ce chez la plus humble créature - et il se rencontre en d'étonnants endroits - toujours il m'a remplie des plus vives délices. (RA. pp.15-16)

넓고 오래된 것들을 미련 없이 부수어 없애고 그 자리에 새롭고 크고 화려한 것들로 채워가면서 우리의 욕심은 채워질지언정 전통과 역사는 훼손당하고

25) 성경책 창세기 1장.

26) "그날 할머니가 완성하려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R. p.17)

"Ce jour-là commença pourtant le plus simplement du monde." (RA. p.13)

잃어가고 있다.²⁷⁾ 가브리엘 루아는 할머니의 푸념 속에서 낡고 소멸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연민, 그리고 회한을 담아내고 있다.

"다들 내가 뭐든 안 버리고 갖고 있으니 짐만 된다고, 그래서 내가 구닥다리 늙은이라고 하는데 말이지..." (R. p.23)

- Ils disent que je garde tout, que je m'encombre, que je suis une vieille démodée... (RA. p.17)

오랜 시간 동안 묵혀있던 노인의 물건들만큼이나 낡고 해묵은 노인의 외모는 세월이 남겨준 흔적들로 주름이 가득 패여 구닥다리 늙은이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지나간 세월만큼 쌓인 연륜은 그녀의 손끝을 타고 나와 마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어내시던 조물주와 같은 모습을 닮아있다.

얼굴 가득 쪼글쪼글한 주름으로 뒤덮인 이 할머니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는 듯했다. (R. p.26)

Il m'apparaissait qu'il n'y avait pas de limites à ce que savait faire et accomplir cette vieille femme au visage couvert de mille rides. (RA. p.19)

사회적 존재로서 역할을 상실한 노인에게 일감이라는 것은 삶에 활기를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존감과 만족감을 준다. 일을 하는 동안 쏟게 되는 집중과 열정으로 인하여 소외된 늙은이라는 고독과 권태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가치 있는 인간으로 거듭났다는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²⁸⁾ 본문에서 하나님과 할

27) 김용민, 『생태문학』, 책세상, 2003, p.8, 참조.

28) "할머니는 코끝에 돋보기안경을 걸치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쉴 새 없이 작업했다. 아침저녁으로 살림에 쫓기는 탓에 저 깊고도 넓으며 불가사의한 운명을 들여다

머니를 동일시하는 손녀의 표현에 노인은 자신감에 도취되어 젊은 시절 자신이 일궈낸 많은 일들이 조물주를 도왔던 것이었음을, 그리하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음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나타내고 있다.

여하튼 할머니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비교가 못마땅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말이다.” 잠시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힘으로 나도 그분의 창조 작업을 나름 많이 도왔거든. 어찌면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건 죄다 했을지도 모르겠구나.” (R. pp.26-27)

Je voyais que malgré tout elle n'était pas offensée de ce que je l'avais comparée à Dieu le Père.

- Car, dit-elle, après un moment de réflexion, avec ce qu'il m'a donné de moyens et mis de bois dans les roues, j'ai quand même pas mal aidé sa création. J'ai peut-être fait tout ce que peut faire une créature humaine. (RA. p.19)

용에 따르면 “꿈은 다른 의식내용처럼 분명히 알 수 있는 논리적 정서적 체험의 연속성에서 나오지 않고 수면 중에 일어나는 독특한 심리활동의 잔여(殘餘)”²⁹⁾인데, 이는 “우리의 무의식과 연관된 또 다른 정신활동”³⁰⁾ 이라고 볼 수

불 틈조차 없던 시절처럼 행복한 표정이었다. 아니 어찌면 지금 이 순간에 꼭 해야만 하는 의무를 넘어서는 일에 몰두할 때에만 느끼는 한없는 행복이 담긴 표정이었는지도 모르겠다.” (R. pp.23-24)

“Elle continuait à travailler, ses lunettes aux yeux, heureuse je pense bien, la chère vieille femme, comme au temps où des tâches urgentes la réclamaient du matin au soir et ne lui laissaient pas de répit pour examiner les vastes profondeurs mystérieuses du destin. On plutôt, heureuse comme elle ne l'était pleinement, sans doute, que lorsque sa tâche dépassait les seules exigences du moment présent.” (RA p.17)

29) C.G. Jung, *Traum und Traumdeutung*, hrsg. von Lorenz Jung, München 2001,

있다. 그것은 때로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코 무의미한 정신활동이라고 볼 순 없다.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정신적 체험이나 생각이 잠을 자는 동안 꿈으로 실현되기도 한다는 이론을 다음 텍스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꿈속에서 화를 씩씩대며 천당에 오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긴 턱수염을 기르고 폭풍처럼 진노할 것만 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빈틈 없고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섬세한 안목을 가진 할머니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이제 구름 속에 앉아 온 세상을 돌보면서 지혜롭고 올바른 법률을 정하고 널리 알리는 이는 바로 할머니였다. (R. p.29)

Dans mon rêve, Dieu le père, à la grande barbe et à l'air courroucé, céda la place à grand-maman aux yeux fins, rusés et clairvoyants. C'était elle qui, assise dans les nuages, dès lors prenait soin du monde, édictait de sages et justes lois. (RA. p.24)

크리스틴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할머니의 위상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다. 이것은 어린 소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흥분되고 신나는 발견이며, 할머니는 더 이상 늙고 쇠약한 존재가 아닌 살아온 인생만큼 연륜이 쌓인 재주꾼(창조자)이라는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가 된다. 그 재주꾼은 어린 소녀에게 있어 “비상한 두뇌와 기발한 솜씨, 그리고 창조에 몰두하는 어떤 도도하고 신비로운 고독”³¹⁾으로 승화되어 결국 할머니의 전능하심에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크리스틴)의 미천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p.89.

30) 김정현, 「무의식과 꿈의 문제 ; 니체와 프로이트, 융의 해석을 중심으로」, 니체연구 제 13집, p.37.

31) “Je devenais humble, très humble devant elle, devant la majesté de son cerveau, l'ingéniosité de ses mains, cette espèce de solitude hautaine et indéchiffrable de qui est occupé à créer.” (RA, p.17)

할머니의 창조물 '예쁜이'를 품에 안고 잠이 들면서 크리스틴이 꾸게 되는 꿈과 크리스틴의 무의식속에 잠재된 할머니의 놀랍고 신비로운 능력이 다시 한번 짝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창조한 전능하신 조물주는 결코 남자가 아니라 할머니와 같은 여자였으리라는 믿음이 크리스틴의 마음속에 한동안 굳게 자리하게 된다.

그때부터 한동안 내 머릿속에는 세상을 만든 이는 남자일 리 없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분은 아마도 놀라운 손놀림을 가진 어떤 할머니였으리라. (R. p.29)

Longtemps il me resta dans l'idée que se ne pouvait être un homme sûrement qui eût fait le monde. Mais, peut-être, une vieille femme aux mains extrêmement habiles. (RA. p.21)

전지전능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크리스틴은 마니토바에 찾아온 극성스러운 더위³²⁾와 함께 생틸레르할아버지를 만난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한동안 나는 시무룩하게 지냈다. 그리고 나서 기묘한 여름이 찾아왔고, 하느님은 이런 나를 달래주려는 듯 어느 멋진 날 다정한 할아버지를 보내주셨다. (R. p.55)

Lontemps je fus malheureuse de la mort de grand-mère. Puis vint un été étrange. Comme pour être consolée, je fis la connaissance d'un doux et merveilleux vieillard. (RA. p.39)

생 틸레르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은 동네의 좁고 구불구불한 내리막길³³⁾

32)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짐통 같은 더위도 다시 깨어났다. 침대에 누워 있기만 해도 이만저만한 고역이 아닌지라 아침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R. p.68)

은 노년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길은 의미하는 범위가 매우 넓다. 길은 단순히 오고가는 도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각자가 정해놓은 목표가 길이 되기도 하고 인생의 출발과 도착을 의미하기도 한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인생의 출발과 도착의 의미로서 생각해 볼 때 길은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길과 시간적인 의미로서의 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른 노인네의 굽은 허리와도 닮아있는 이 길은 정상까지 오르기 위해 힘들었던 과거를 보상이라도 해주듯 걷기에 수월한 내리막길이다. 그리고 이 길의 특징은 무엇보다 움직이는 속도가 다른 길보다 빠르다는데 있다. 시간의 속력은 나이와 비례한다는 사담에 빗대어 보면 노인은 노인의 나이만큼이나 빨리 시간이 흐르는 그 곳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곳에 가면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길에서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트며 굴렁쇠며 내 몸마저도 다른 곳에서보다 더 빨리 굴러가는 듯했고, 그럴 때면 컷가에 바람이 뽁뽁 맴돌았다. (R. p.55)

Là tout allait plus vite qu'ailleurs, mes patins, mon cerceau, moi-même, le vent à mes oreilles. Cela me distrairait. (RA. p.39)

“Bien entendu, avec le jour, se réveilla, le lendemain, la pleine chaleur. Il fallait se lever très tôt, car au lit on ne «s’endurait» plus, tant le soleil déjà plombait.” (RA. p.48)

33)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좁은 내리막길에 살고 계셨다. (중략) 게다가 나 말고는 이 좁고 구불구불한 내리막길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R. p.55)

“Il habitait non loin de chez nous une petite rue légèrement en pente où j’allais volontiers avec mes patins à roulettes ou mon cerceau” (RA. p.39)

크리스틴이 생 툴레르 할아버지와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던 데에는 이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감이란 “호프만(Hoffman)은 타인의 정서 상태나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를 느끼거나 타인의 위치에 들어가 봄으로서 느끼는 것이 기대될 때 유발되는 정서적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³⁴⁾ 다시 말해, 상대방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그의 감정과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해주는 능력을 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부모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어린 나이의 크리스틴과 늙어 몸이 불편해 목발에 의존해야 하는 생 툴레르 영감 사이에는 공감적 관심이나 정서의 공유라는 공감대가 다리를 놓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둘의 관계는 나이를 초월하여 소통이 확장되고 있다.

“아니, 난 다리를 절어서 목발이 필요하다고만 했단다.”

이 말을 듣자 할아버지가 특별한 친구로 보였다.

우리는 뿔레야 뿔 수 없는 단짝처럼 무엇이든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사이가 되었다. (R. p.57)

- non, me dit-il, mais j'ai prétendu boiter et avoir besoin de béquilles.

Cela me fit voir en lui un camarade d'élection. (...) Dès lors, nous pouvions parler d'à peu près tout sur un ton qui sans doute ne nous éloignerait jamais l'un de l'autre. (RA. p.40)

따분한 일상을 보내는 손녀를 위해 할머니가 이쁜이를 창조해냈다면 생 툴레르 할아버지는 역할 놀이를 통해 크리스틴에게서 다른 많은 인물들을 발견

34) 김나연, 「공감 초점 및 행위의 통제가능성에 따른 집단 내 의사소통」,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12, p.4.

하며 창조하고 있다. 이 역할 놀이를 하는 동안 크리스틴은 자기 자신을 잊은 채 자기가 되고 싶은 그 누구도 될 수 있다.³⁵⁾

넓고 볼품없는 재료들로 예쁜이를 창조해내시던 할머니가 크리스틴에게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과 같은 인물이었다면, 생틸레르 할아버지는 크리스틴을 미지의 세계로 안내하는 인물이다. 이 안내자 역할의 노인은 질문이 끊이지 않는 크리스틴에게 단 한번도 노코멘트 한 적이 없으며, 소녀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다 알고 있기라도 한 듯 노인의 대답은 크리스틴에게 언제나 만족감을 준다. 그리고 이 만족감은 할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 승화된 다.

이런 묘사는 내가 읽은 어떤 책에 나오는 대목이었다. “안느 언니, 뭐가 보여/ - 뽀얗게 먼지가 일어나는 땅밖에 안보여”³⁶⁾라는 구절이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물었다. “근데 ‘뽀얗게 먼지가 일어나는 땅’이란 건 무슨 뜻인가요?”라고. 할아버지는 내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셨다. (R. p.63)

35) "Qui es-tu aujourd'hui? me demanda-t-il. Ainsi il savait déjà que je n'étais pas souvent seulement moi. À l'instant où l'on me parlait, je pouvais être le Chinois blanchisseur passant pour le ramassage du linge sale; ou le vieux colporteur italien, en quel cas cependant je me faisais habituellement reconnaître en lançant partout avec ce que je croyais être un accent d'Italie : banania, banania.. Je pouvais aussi être une princesse." (RA. p.41)

36) 샤를페로의 동화 『푸른수염』에 나오는 내용으로, 무섭고 추악한 푸른수염과 결혼한 아내가 푸른수염이 맡긴 열쇠꾸러미 중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한 열쇠에 대해 궁금함을 못이긴 언니의 부추김으로 결국 금지된 방을 열어보게 되면서 푸른수염의 전처들이 살해되어 가두어진 방이라는 비밀을 알게 된다. 이를 눈치 챈 푸른수염이 아내와 언니를 죽이려고 쫓아오자 자매는 푸른수염을 피해 성의 꼭대기에 올라가 오빠들이 오기를 기다린다. 위의 본문에서 크리스틴이 질문하는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땅’이란 동생들을 구하러 말을 타고 달려오는 오빠들 뒤로 흩먼지가 일어나는 땅을 의미한다.

(Cela me venait d'un de mes livres. «Que vois-tu, sœur Anne? - Que la terre qui poudroie.»)
Et je demandai enfin: «Qu'est-ce que ça veut dire: la terre qui poudroie?»... et le vieillard me l'expliqua. (RA. p.43)

크리스틴에게 있어 생 툴레르 영감은 지혜로우며 박식하여 모르는 것이 없는 인물이다. 할아버지의 대답은 검증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정답이며 진리로 간주된다.

“어쨌든 내가 아는 한은 그렇단다.:
할아버지가 잘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테니 분명히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R. p.73)

- Pas à ma connaissance, en tout cas.
Et cela me parut certain puisque lui, qui devait si bien s'y connaître, me l'affirmait. (RA. p.50)

생 툴레르 할아버지와 만남은 크리스틴에게 배움의 기쁨을 알게 했다.³⁷⁾ 더 나아가 노인과 함께 위니펙 호수로 떠나게 되는 짧은 여행을 통해 “지치지 않는 속삭임과 고요한 침묵”³⁸⁾의 느낌을 들려주는 호수 앞에서 크리스틴은 발

37) “나는 새로 배운 ‘폭염’이라는 단어에 이내 홀려 버렸다. 이렇게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매일 무엇인가를 배워 갔다.” (R. p.76)

“La canicule, pensai-je, enchantée de ce mot que j'apprenais. Avec mon vieillard, tous les jours j'apprenais quelque chose.” (RA. p.52)

38) “내가 예상하던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는데, 바로 그 특유의 소리를 들려주던 호수가 조용히 침묵을 지키기도 한다는 사실이었다. 지치지 않는 속삭임과 고요한 침묵의 느낌이 어떻게 이리도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것일까?” (R. p.103)

“Mais il y avait de plus ceci à quoi je ne m'attendais pas: c'est que le lac qui faisait entendre son bruit particulier gardait cependant aussi le silence. Comment concilier cela, cette impression d'un murmure infatigable et en même temps de silence?” (RA. p.71)

견의 기쁨을 깨닫게 된다.

아아, 아마도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괜찮았겠지만, 감당할 길 없는 미지의 기쁨에 그저 놀라고 또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그것이 기쁨의 특성 그 자체라는 것을, 놀라움 속에서 경험하는 황홀함이라는 것을, 그토록 단순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아아, 이게 바로 그것이구나!”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커다란 발견의 느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R. p.104)

Ah, sans doute l'étais-je comme jamais encore je ne l'avais été, mais justement cette joie inconnue était comme trop grande, elle me tenait suprêmement étonnée. Par la suite, j'ai appris évidemment que c'est le propre même de la joie, ce ravissement dans l'étonnement,, ce sentiment d'une révélation à la fois si simple, si naturelle et si grande pourtant que l'on ne sait trop qu'en dire, sinon: «Ah, c'est donc cela!» (RA. p.72)

그리고 할머니에게서 느꼈던 하나님의 지혜롭고도 인자한 표정³⁹⁾을 할아버지에게서 다시 느끼게 된다. 『알타몽으로 가는 길』에 등장하는 두 노인은 사회적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인생의 꼬트머리에서 곧 찾아올 죽음을 기다리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였지만, 루아의 작품 속 어린 크리스틴의 시선 즉 순수한 생태적 시선으로 들여다보았을 때는 지혜롭고 박식하며 언제나 긍정적이고 삶에 대한 희망을 주며 미지의 세계로의 동행과 함께 가슴 벅찬 발견의 느낌을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안내자이다.

39) "할아버지는 지혜롭고도 인자한 눈길로 나를 내려다보시더니 다정하게 물으셨다." (R. p.71)

“췌, 췌, 췌, 희망이 죽어 버렸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 희망은 죽지 않아.” (R. p.73)

"Tut, tut, tut, il ne faut jamais dire que l'espoir est mort. Ça ne meurt pas, l'espoir." (RA. p.50)

이 늙은 안내자는 어린 크리스틴에게 삶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게 하며 항구성과 변화의 신비를 동시에 보여주는 미지의 세계인 '저 커다란 위니펙 호수'로의 가슴 벅찬 여행을 동반하는 인물로, 훗날 크리스틴 스스로 계획하고 떠나는 여행 속에서 진짜 발견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기대와 깨달음을 알게 해준 인물이다.

그러다 나는 '그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라는 말을 '저 좋으신 생 툴레르 할아버지'라는 말로 슬그머니 바꾸었다. (R. p.86)

Puis, d'instinct, je remplaçai le «vieux monsieur veuf» par «ce bon monsieur Saint-Hilaire» (RA. p.59)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노인의 자아의식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형성되느냐 하는 것은 주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소설이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것이라 판단된다.

3) 순수성의 아이

가브리엘 루아가 그녀의 작품을 통해 예찬하고 있는 자연은 아직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 원시의 자연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희망이 있는 공간이다. 그 곳은 황폐하고 광활하며 어둡고 쓸쓸하지만 희망을 찾아 학교를 향하여 언덕을 오르내리는 아이들이 있기에 미개치이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부여할 수 있는 곳이다. 아이들은 태고의 자연만큼 순수하며 미개척지와 같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어른들의 사회적 관습이나 가치관에 물들어 있지 않기에 기존의 질서와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춘 존재이다.

김상환은 어린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어린이는 어른의 위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옆의 어느 쪽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마치 로고스중심주의에서 이성이 모든 인간 안에 내재하는 것처럼, 이제 어린이는 모든 인간 혹은 미지의 것으로 외출하는 힘으로서 우리 안에 존재한다. 미래적으로 사유하고 철학한다는 것은 우리 안의 유년기적 미성숙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사유와 비사유 혹은 개념과 비개념 혹은 진리와 오류가 아직 예측 불허의 결과를 향하여 재조합되는 원점에 대한 이름이다.⁴⁰⁾

아이가 상상하는 힘, 생각하는 힘은 아이일 때만 가능하다. 어른이 되어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하여 노력한들 억지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에게서 보듯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이며, 자유롭고 순수한 내면의 힘으로부터 돌아나는 것이다. 의학으로 고치지 못한 병든 육체를 자연의 힘으로 치료하는 기적이 존재하듯이 어린아이 안에 있는 내면의 순수한 힘이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에게 밝은 빛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40) 김상환, 「예술가를 위한 형이상학」, 『철학의 두 가지 초상』, 민음사, 1999, p.122.

일들이 루아의 소설 속에서 기적처럼 일어난다.

그는 자신의 탁월한 재능 외에도 남들이 지닌 재능을 살려내는 재능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닐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하여 모두가 다 노래를 잘 할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EV. p54)

Il possédait celui de paraître en donner aux autres. On écoutait Nil chanter et on se croyait tous capables de chanter. (CEV. p.37)

『내 생애의 아이들』의 「종달새」에 등장하는 닐은 우크라이나 출신 엄마를 둔 소년이다. 닐은 루아가 그녀의 작품에서 그토록 예찬하고 있는 광활하고 미개한 황무지의 자연환경환경과는 사뭇 다른 곳에 살고 있다. 소설 속에서 닐이 살고 있는 집까지 가는 길은 마치 절망의 길을 걷는 듯 어둡고 거칠며 자칫 방향을 잃고 헤어 나오기 힘든 늪과 같은 곳이다. 푹푹 빠질 것 같은 진창 길 위로 대충 던져놓은 널빤지들이 징검다리처럼 길 모양을 하고는 있지만 그 폭이 한걸음에 건너기에 넓은 곳도 있어 위태로운 형상을 하고 있다. 이 길은 마치 인생의 가장 힘겹고 위태로운 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길이다. 봄기운을 망쳐놓을 만큼 고약한 악취가나는 도축장은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며, 널빤지로 불안하게 엮어놓은 진흙탕의 늪 또한 삶의 불안한 순간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고약한 악취는 닐의 집에 다다를 무렵 기분 좋은 히야신스 꽃향기로 바뀌어 도축장의 마지막 악취와 거의 동등한 힘으로 겨루기를 하다가 닐의 집 쪽으로 몇 발자국 더 가까이 가자 꽃향기가 압도하는 것은 물론 진흙탕길 역시 물에 젖은 땅 즉, 생명이 있는 땅으로 바뀌면서 가까운 연못으로부터 신명나게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마저 들리는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술한 역경들은 대부분 스스로 견뎌낼 만한 것이지만 때론 제대로 뛰어 넘지 못해 진흙탕에 빠져 도축장의 악취와 함께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할 때가 있다. 그렇게 희망이 없는 진흙탕 오솔길을 지나가는 이에게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는 아이, 어두운 터널 같은 삶으로부터 한줄기 빛으로 인도해주는 아이가 바로 널인 것이다.

그 매력적인 노래가 끝났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빠져 들어가 있었다. 아이들도 차츰차츰 제자리로 돌아갔다. 반 전체가 보기도 드문 평화로움에 젖어 있었다. (EV. pp.61-62)

Quand prit fin l'aimable chant, nous étions dans un autre monde.
Les enfants d'eux-mêmes avaient peu à peu regagné leur place.
La classe était dans une paix rare. (CEV. p.42)

널이 부르는 노래는 우크라이나 태생의 엄마로부터 배운 우크라이나 전통노래이다. 엄마는 이방인으로 사는 서러움과 소수민족으로서 느끼는 애환을 고향의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달랠 것이다. 그리고 종달새 보다 더 고운 음성을 가진 널에게 그의 “마지막 남은 고향의 노래”⁴¹⁾를 가르쳐주었다.

널이 부른 노래의 내용을 보면 노래가사를 해석하기에 따라 매우 다른 풍의 노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꽃이 활짝 핀 벚나무예요. 우리 어머니 고

41) “아니, 그런데 너희 어머니는 그 노래들을 어디서 배웠지?”

“이민 오기 전 고향에서요. 어렸을 때요. 어머니는 이제 그게 우크라이나 것으로 마지막 남은 거라고 해요.” (EV, p.62)

“- Mais où donc ta mère a-t-elle appris ces chants?

- Dans le pays, avant d'émigrer, quand elle était une petite fille. Maintenant, elle dit que c'est tout ce qui nous reste de l'Ukraine. “ (CEV, p.43)

향에는 그 나무가 아주 많아요, 그 벚나무가 들 한가운데 있어요. 그 주변에는 처녀들이 춤을 추지요. 처녀들은 찾아올 연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내용이구나!"

"그래요. 하지만 나중에는 슬퍼져요. 연인들 중 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거든요."

"안됐구나!"

"아네요. 그 덕분에 몰래 짝사랑하던 착한 사람에게 기회가 생긴걸요." (EV. p.62)

- Il y a un arbre. C'est un cerisier en fleur. Au pays d'où vient ma mère c'en est tout plein. Ce cerisier, il est au milieu d'un champ. Autour, dansent des jeunes filles. Elles attendent leurs amoureux qui vont venir.

- Quelle jolie histoire!

- Oui, mais elle va être triste, fit Nil, car il y a un des amoureux qui a été tué à la guerre.

- C'est dommage.

- Non, dit Nil, car ça va donner une chance à celui qui aime en secret et qui est le bon. (CEV. p.42)

예술은 언어와 나이, 성별 등 서로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벽을 허물고 이들을 통합해주는 힘이 있다. 닐이 들려주는 노래 역시 이방인의 언어이지만 그의 노래가 한줄기 빛처럼 진동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있는 모두를 감싸고 어루만져 주면서 모두 하나를 이루며 감동을 느끼게 한다. 이 소설의 작중 화자인 여교사는 닐의 노래에 대한 감동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나 자신도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았다. 닐의 노래가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다. 이제 나는 삶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 (EV. p.62)

Moi-même je ne désespérais plus de mon avenir. Le chant de Nil avait retourné mon cœur comme un gant. J'étais à présent confiante en la vie. (CEV. p.42)

여교사의 엄마는 석 달 전 허리뼈를 다쳐 깁스를 하기 전까지는 매우 생기 있고 적극적이며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깁스를 하는 동안 꼼짝달싹 못하였는데 그 때의 고통과 절망감이 깁스를 풀고 나서도 계속 이어져 결국 걷는 것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닐의 노래로 인하여 삶이 희망으로 바뀐 여교사는 노래마저 다 잃어버린 엄마를 위해,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기란 쉽지 않은 나이에 외롭게 서있는 엄마를 위해 여섯 살 반밖에 안 된 어린 닐을 집으로 데리고 간다.

그는 바람 속에서 저항하듯 엄마 앞에 딱 버티고 서더니 즐거운 빛 나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몸이 일렁거리고 두 눈에 불꽃이 튀는가 하면 입술에 미소가 번지면서 그의 작은 손이 쳐들리면서 병자의 방 저 멀리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 같았다. (중략)
닐은 노래를 하나 더 불렀다.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짓는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도움으로 엄마 역시 꿈의 날개를 달고 높이 솟아올라서 삶의 저 위로 날았다. (EV. p.65)

Il se campa devant maman comme pour prendre pied dans du vent et se lança dans la gaie chanson du cersier. Son corps se balançait, ses yeux pétillaient, un sourire vint sur ses lèvres, sa petite main se leva et parut désigner au loin de cette chambre de malade... (omission)

Nil chanta une autre chanson, et cette fois maman redressa la tête, elle regarda l'enfant souriant et, avec son aide, partit elle aussi, prit son envol, survola la vie par le rêve. (CEV. p.44)

닐의 노래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고 난 뒤 젊은 교사의 어머니는 그동안 놓고 있었던 삶에 대한 희망을 하나씩 잡아당기기 시작한다. 기력이 쇠하여 걷기조차 불편했던 그 노인은 작가가 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자신이 고안해낸 이상한 “보행기”를 가지고 이때부터 걷기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⁴²⁾ 여러 주일이 지나도 달라질 것 없어 보이던 그의 노력이 딸의 눈엔 그저 부질없게 느껴졌지만 신기하게도 노인은 희망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끝내 기적을 만들어 외친다.

"나, 걸어! 걷는다고!" (EV. p.66)

- Je marche! Je marche! (CEV. p.45)

학교와 여교사, 그리고 여교사의 엄마에 이르기까지 닐의 생명을 향한 희망의 빛줄기는 종교처럼 번져 나간다. 그리고 이번엔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노년의 감옥 속에 갇힌 채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양로원의 노인들을 향하여 그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

내가 보기에 오직 그 아이만이 그 양로원의 담장 안에 갇혀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이다. (EV. p.67)

Lui seul me semblait devoir être capable de réconforter les vieillards que j’avais vus emmurés à l’hospice. (CEV. p.45)

젊은 여교사가 바라본 양로원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구겨지고 주름지고 찌그러들고 무너진

42) “엄마는 이렇게 자신이 고안해낸 이상한 ‘보행기’를 가지고 이때부터 걷기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 (EV. pp.65-66)

노인들이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나가는 곳일 뿐이었다. 그 곳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노년은 대체 어디에서 바라볼 때 가장 끔찍하게 보이는 것일까? 이 양로원의 사람들처럼 되었을 때?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다감한 젊음으로부터 먼 곳에서 바라보았을 때?”⁴³⁾라고..

그리고 이때 저물어가는 저녁 속에서 마치 인생의 찬란한 아침으로부터 오는 듯한 날의 노랫소리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그는 꽃이 만발한 벚나무, 초원에서 사랑에 빠져 춤추는 처녀들의 운무, 젊은 가슴들의 기다림을 노래했다. 자연스러워서 더욱 매력적인 몸짓으로 그는 자주 손을 들어 따라가야 할 어떤 길을... 혹은 어떤 지평선을 가리켰다. 그의 반짝이는 눈빛으로 보아 그 길 혹은 지평선은 빛 밝은 곳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다. 어느 한순간 그의 두 입술이 벌어지면서 번져 나오는 미소는 너무나도 전염성이 강한 것이어서 무대와 객석을 갈라놓은 난간을 넘어 노인들의 얼굴에 부드럽고 신선한 빛 그대로 와서 찍히는 것이었다. (EV. p.70)

Il chanta le cerisier en fleur, la ronde des amoureuses dans la prairie, l'attente des cœurs jeunes. D'un geste charmant de naturel, souvent il levait la main et montrait une route à suivre... ou quelque horizon, qu'à voir briller ses yeux, on imaginait lumineux. À un moment ses lèvres s'ouvrirent en un si contagieux sourire qu'il sauta la rampe et s'imprima, doux et frais comme il était, sur les vieux visages. (CEV. p.47)

노래는 다른 음악과는 다른 장점이 있다. 그것은 목소리를 우리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특별한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부를 수 있다는 장점과 편리성이 있으며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43) EV. p.69.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그렇다. 그리고 노래가사나 정서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며 인간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해내기에 매우 좋다.

닐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가사에서도 느껴지듯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도약하는 사랑의 노래이다. 닐이 노래를 할 때 손을 들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 보면 그곳에는 진창길을 지나 드문드문 보이는 창가의 불빛처럼 하나둘 희망의 등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조금 더 힘을 내어 가다보면 히야신스 꽃 내음이 가득한 행복과 평화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

노인들은 이제 더 이상 전과 같지 않았다. 삶의 어두운 저녁에도 그 아침빛이 아직 그들에게까지 비쳐드는 것이었다. (EV. p.70)

Je ne reconnaissais plus les vieillards. Au soir sombre de leur vie les atteignait encore cette clarté du matin. (CEV. p.47)

닐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적막한 양로원 안을 가득 메우자 고통과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노인들에게 평화가 찾아 든다. 아름다웠던 과거를 떠올리며 그들의 표정은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눈길은 모두 닐의 입술에 고정시키고 있었다.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리하여 노인들은 잃어버린 것의 흔적을 자신들의 내면에서 그토록 생생하게 되찾을 수 있게 되었기에, 어떤 이는 금방이라도 웃음을 터뜨릴 듯이, 또 어떤 이들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이, 어린애들처럼 동요하는 가운데 객석의 그 비참한 광경은 일종의 패러디로 마감되었다.”⁴⁴⁾

닐은 암흑과 같은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노인들의 삶에 찬란한 생명과 구원

44) EV. p.71.

의 빛을 비추어주었다. 그것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예술의 힘과 더불어 순수한 아이의 마음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의 빛이었다.

3. 순환

물극필반(物極必反)⁴⁵⁾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어떤 일이 극에 달하면 반전이 생겨 다시 되돌아온다는 말로, 인간과 자연 그리고 모든 사물이 낡고 소멸되는 순간 그 끝이 처음으로 이어져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것이라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계절은 1년을 주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의 반복을 거듭한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낡고 오래된 것은 소멸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모든 생태계에는 자연의 섭리와 질서가 있다. 이것을 바꿔 말해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생명을 유지하며 존재하기 위해서는 순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람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기본적인 순환과정에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 성장하여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사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 나의 아이가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는 동안 나 자신도 늙게 되는 것처럼 인간 생태계의 질서도 삶과 죽음의 분리가 아닌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끊임없이 순환한다.⁴⁶⁾

순환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하기의 순서를 바꿔 사용하였음을 미리 알려둔다. 그것은 ‘탄생과 죽음’, ‘생

45) 주역周易에 나오는 말로,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을 일으킨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곧 사물이나 형세는 고정되어있지 않고 흥망성쇠를 반복하게 마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46) 정순진, 『순환의 질서를 위하여 : 현대시와 생태윤리』, 녹색평론사 41, 1998, pp.74-88, 참조.

성과 소멸', '만남과 이별'의 순서로 말했을 때 느껴지는 공통된 어감이 순환이 아닌 끝남의 의미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죽음과 탄생', '소멸과 생성', '이별과 만남'의 순서로 배열하였을 때 본 논문의 주제의 흐름과 더 어울릴 것이라는 의미에서 정하였음을 밝힌다.

1) 죽음과 탄생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삶을 살아간다. 여기에서 삶이란 죽음에 점점 다가가는 것, 다시 말해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죽음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다. 동전에 양면이 존재하듯 인간에게도 삶과 죽음이 고스란히 내재되어 있다. 또한 죽음과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노화, 늙어감, 노년이라는 자연의 순리로 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없다. 이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죽음은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늙는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에 대해 회피하고 무관심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살아있는 존재의 젊고 아름다운 육체는 활력이 넘치고 매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임과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다. 그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늙음'과 '늙어감'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현실 사회 역시 노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문학 속 노인들에 대한 묘사 역시 정태적이고 무기력하게 그려지는 경향이 있다.

부엌 한구석에 꾸부정하게 앉아 기묘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눈을 떴지 않던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R. p.40)

Je voyais, tassée dans le fond de la cuisine, une vieille personne

dont les yeux suivaient toutes nos allées et venues avec une expression étrange. (RA. p.30)

‘노인’의 모습은 대체로 가부장적이거나 절대권위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거나 가족 내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소외되고 배제된 늙은이의 형상을 하고 있다.

가브리엘 루아의 소설에서 ‘노인’에 대한 시각은 주로 등장인물의 대화나 혼잣말을 통해 그려지고 있는데 크리스틴 즉 아이의 시각을 통한 이미지는 지혜롭고 박식하며 절대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이며, 엠마 (크리스틴의 엄마)의 시각을 통한 이미지는 늙고 힘이 쇠약한 쓸모없는 늙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서 양극화된 노인을 그리고 있다. 그 중 후자인 부정적 시각으로 노인을 바라보고 있는 크리스틴의 엄마는 아이러니하게도 곧 노년의 삶을 준비해야 할 중년 부인이라는 점에서 연구자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는 노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과 걱정과 고뇌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삶의 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미리 경험해볼 수 없는 시간적 영역에 대한 신비로움과 늙으면 죽는다는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기에 이 중년부인의 부정적인 시각은 매우 유의미하다.

엄마 : 엄마 나이가 되면 삶이 어떻게 보여요?

할머니 : 꿈처럼 보인단다, 애야. 그저 꿈처럼 보일 뿐이지. (R. p.43)

Maman : Quand on arrive à votre âge, maman, comment donc apparaît la vie?

Grand-mère : Un rêve, ma fille, pas beaucoup plus qu'un rêve.
(RA. p.31)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은 경험해 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공포와 무지로 인하여 지켜보는 가족들조차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하는 언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곧 이별하리라는 슬픈 감정에만 뒤엉켜 노인이 일상적으로 해왔던 습관에 대하여 쓸모 없는 행위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분노로써 표출되기도 한다.

“엄마도 당신이 가꾼 오이며 호박을 다 거둬들였겠지. 엄마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장해 둔 게 분명해. 하지만 그래 봤자 다 무슨 소용 이람? 그런 일이 다 저 불쌍한 노인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R. p.37)

- Elle aussi, disait-elle, a dû rentrer ses concombres, ses courges. Elle aussi doit avoir conservé le plus possible. Mais à quoi bon! A quoi lui servira tout ce travail, pauvre vieille? (RA. p.28)

하지만 노인은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감지한 듯 주변을 정리하고 어느 날 훌쩍 떠나게 될 꿈의 나라로의 여행을 준비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것 같은 당당함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곳으로의 출발을 최대한 늦추고 싶은 노인의 깊은 속내가 담겨있음을 다음의 문장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다.

엄마는 할머니가 짐 가방을 쌀 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전리품’을 깊숙이 집어넣는 모습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털어놓았다. 이 ‘전리품’은 바로 할머니가 인생의 일부를 기울여 만든 뒤, ‘앞으로 다가올’ 날을 위해 고이 간직해 온 최고급 침구와 속옷가지였다. 그날은 대체 언제일까? 무슨 이유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아름다운 전리품’을 사용할 날을 그리도 먼 훗날로 미루는 걸까? 사실 그 당시 할머니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러듯 계획만 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R. pp.39-40)

Mais elle nous dit à nous que grand-mère en faisant sa valise, avec l'air de rien, y avait glissé, au fond, son «butin».

Par son «butin», grand-mère entendait son linge le plus fin de lit et de corps auquel elle avait travaillé une partie de sa vie et qu'elle ménageait pour un temps qui «allait venir». De quel temps pouvait-il donc s'agir? Et pourquoi grand-mère remettait-elle à si tard de se servir enfin de son «beau butin»? Mais, il est vrai, les vieilles de ce temps-là ne faisaient rien comme on fait aujourd'hui. (RA. p.29)

죽음을 앞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⁴⁷⁾ 그것은 죽음 자체에 대한 불안보다 존재감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소설가 박완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의 산문집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고통도 없이 노망도 안 들고 죽을 수 있다고 해도 역시 죽음이 무서운 것은, 죽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가슴을 예이는 비통 중에서도 꽃 피는 계절은 아름다웠고, 새로 태어난 손자를 안아보는 기쁨은 황홀했고, 자식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만들 때는 신바람도 났건만 그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 죽음과 동시에 느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 그러나 완전한 무가 바로 무한이란 생각도 든다. 죽음과 동시에 느낄 수는 없게 되더라도 살아있는 이들에게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것, 무한한 것의 일부로 환원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⁴⁸⁾

47) “난 아직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고 바란단다. 내 생각에 우리 모두는 늘 시간이 조금만 더 있기를 바라는 것 같구나” (R. p.123)

Je voudrais encore un petit peu de temps. Je suppose qu'on voudrait toujours encore un petit peu de temps. (RA. p.82)

48) 박완서, 『어른노릇 사람노릇』, 작가정신, 1998, pp. 92-93.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삶과 죽음은 분명하게 그어놓은 한계로써 단절된 서로 다른 세계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이다. 모래시계의 양쪽에 연결된 두 병처럼 그 안의 모래가 한쪽 방향으로 모두 다 떨어진다 하여도 두 공간이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래는 언제든지 다른 방향의 병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순환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어찌면 내 마음 속에 영킨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할머니는 늙어가는 동시에 두 번째 유년시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R. p.42)

Voilà sans doute ce qui achevait de m'embrouiller moi-même: qu'on en fût, à propos de grand-mère, à parler à la fois de vieillesse et de deuxième enfance. (RA. p.31)

사람이 늙으면 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다시 '순환한다'는 의미로 재해석해 볼 수 있다. 아이와 노인에서 느껴지는 탄생과 죽음이라는 명제가 서로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탄생과 죽음, 죽음과 탄생은 모래시계의 양극처럼 서로 연결되어있다. 따라서 사람이 아이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다시 돌아가는 순환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노인이 정말로 우리 할머니였을까? 순진했던 어린 시절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적어도 그분의 가장 뛰어난 조수 중 한 명이라고 믿었던 사람, 생의 하루하루를 이 지상에서 다른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마련하는 데 온전히 바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을까? 나는 전지전능한 분은 오직 그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엄마 말마따나 이따금 우리를 완전히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어야만 했을까? 손에서 일감을 놓는 일이 없던 할머니는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마비된 채

나무토막처럼 누워 있기만 할 뿐이었다. (R. p.45)

Était-ce vraiment là ma grand-mère qu'un jour, en ma naïveté enfantine, j'avais cru être Dieu le père, ou du moins une de ses meilleures aides, tous les jours de sa vie occupée à parer, sur terre, aux besoins humains? De tout-puissant, je commençais à comprendre qu'il n'y avait que Lui, mais pourquoi, dès lors, avait-il besoin, comme le disait maman, de nous réduire parfois à l'impuissance totale? Ma grand-mère travailleuse, elle gisait paralysée de la tête aux pieds. (RA. p.32)

이제 노인은 그가 세상에 태어나 강보에 싸여 누워있던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다. 인생의 순환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할머니와 엄마의 모습에서 화자인 크리스틴은 아이와 어린 시절과 노인이라는 인생의 질서 앞에서 큰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말로 주문만 하면 무엇이든 척척 만들어내시던 전능하신 할머니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처럼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고 엄마는 그 옛날 엄마에게 '아가야'라고 부드럽게 불러주었을 할머니를 향해 '엄마~'라고 부르고 있다. 전능하신 할머니에서 무능력한 존재로 변해버린 할머니의 모습은 어린 크리스틴에게 충격이고 배신이며 슬픔 자체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창조주의 능력을 가진 할머니가 아닌 아기로 변해버린 할머니를 향해 온몸이 마비된 '나무토막'이라거나 불러도 꿈쩍도 않는 '덩어리'로 칭하며 혼란스러움과 슬픔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엄마는 자신이 계속해서 '엄마'라고 부르지만 정작 이불 속에서 꿈쩍도 않는 그 덩어리 옆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R. p.45)

Elle se tenait près de ce bloc immobile sous les couvertures qu'elle continuait toujours à appeler «maman. (RA. p.32)

할머니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편안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잠이 든 인생의 첫 모습으로 돌아가 있다. 그 옛날 출산을 마친 할머니가 엄마를 '아가야'라고 부르며 딸의 곁을 지켰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엄마는 이제는 늙어 움직일 수 없는 노년의 아가를 위해 다가올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따금 할머니의 눈이 스프르 감길 때도 있었다. 나는 할머니가 이 모든 질문에 싫증이 나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에 따르면 그건 '그래'라는 긍정의 의미였다. 그러면 엄마는 자기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해 준 누군가를 위해 자신도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서는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다. (R. p.47)

Parfois les yeux se fermaient. Moi je croyais que c'était de lassitude à toutes ces questions. Mais d'après maman cela signifiait: oui, et elle se hâtait, contente de pouvoir encore quelque chose pour quelqu'un, comme elle disait, qui en avait tant fait pour elle. (RA. p.33)

노인의 스프르 감긴 눈을 보며 "그래"라는 긍정의 의미라고 말하는 문장은 많은 시사점을 남겨준다. 타인을 거부하지 않는 포용력, 자연에 순응하고 동화되는 것, 그동안 살아온 연륜과 경험으로 인하여 의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노인의 긍정적인 모습에서 아이처럼 순하지만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로운 인간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할머니의 죽음을 지켜보는 어린 손녀에게 죽음이란 단순한 사라짐, 부재⁴⁹⁾의 의미였다. 그러나 생틸레르 영감을 만나면서 죽음은 영원의 의미로

49) "나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사라지거나 부재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가 다른 날에는 더 이상 없는 것이라고나 할까..." (R. p.49)

"Je ne savais pas ce qu'était la mort. Il ne s'agissait à mes yeux que d'une disparition, ou d'une absence. Un jour les gens étaient là... un autre jour ils n'y

각인된다.

할아버지는 다른 얘기들을 들려 주셨다. 이를테면 호수가 매니토바 땅보다 나이가 더 많고, 수천 년 뒤에도 꼭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얘기였다. 할아버지는 '영원'이라고 하셨다.

이 말에 나는 덜컥 겁이 났다. 어두컴컴한 떡갈나무⁵⁰⁾ 숲에 갔을 때 처럼 혼란스러웠다. 그곳에 가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 속에 있던 할머니의 모습이 늘 떠올랐기 때문이다.

“ '영원'이란 말은 우리가 죽을 때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다. 삶은 끝이 없다는 뜻이지.” (R. p.98)

Mais, quelques minutes plus tard, il m'en racontait d'autres. Par exemple, que le lac était plus vieux que la terre du Manitoba et qu'il serait encore là après des milliers d'années. Pour l'éternité des temps, me dit-il.

Je pris peur à ce mot. J'en fus troublée comme lorsque j'allais dans le petit bois de chênes sombres où toujours je retrouvais - mais pourquoi là? - le souvenir de ma grand-mère en son cercueil.

- L'éternité des temps, c'est quand on meurt?

- Mais non, c'est la vie qui ne finit plus. (RA. pp.67-68)

루아의 소설 『알타몽가는 길』에서 떡갈나무에 대한 몇 차례의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떡갈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한 나무로 줄기와 껍질이 매우 단단하다. 또한 바닷가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어촌에서는 여름에 나무껍질 속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으로 그물을 염색하였는데 이렇게 물을 들이면 바닷물이 스며들지 않

étaient plus..." (RA. p.35)

50) 본문의 밑줄은 떡갈나무에 대한 부연설명을 위해 연구자가 표시하였다.

아서 그물이 잘 썩지 않는 이유에서였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의 나무로 상징화되어 제우스가 인간에게 경고를 줄 때 가장 딱딱하고 강한 떡갈나무를 골라 벼락을 때린다고 하여 그리스인들은 번개가 치면 떡갈나무 밑에 숨지 말라는 충고를 하였다. 이러한 신화적인 이야기를 뒷받침하듯 떡갈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번개를 잘 맞는다. 그래서 "고대부터 사람들은 번개가 내리치는 것을 떡갈나무와 하늘 간의 연결로 해석했다."⁵¹⁾

『알타몽가는 길』 중 「전지전능한 할머니가 죽었다」에서 늙은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오기 위해 엄마가 할머니의 고집을 꺾는다는 표현으로 '나무를 흔들러간다'라고 했을 때 크리스틴에게 떠오르는 나무는 떡갈나무였다.⁵²⁾ 그리고 「노인과 아이」에서 생 킬레르 노인과 역할놀이 중에 여행자가 된 크리스틴이 달음질쳐 간 곳 역시 작은 떡갈나무 숲이었으며, 이곳에서 크리스틴은 돌덩이처럼 딱딱한 얼굴로 관 속에 누운 할머니를 떠올린다.⁵³⁾

떡갈나무는 '쿠에르쿠스 덴타타(Quercus dentata)'라는 학명⁵⁴⁾을 가졌으며 꽃말은 '사랑은 영원히'이지만 까마귀가 머물며 '죽은자여 나오라'하며 까악까악 운다고 하여 애도의 나무라는 별명이 있다. 이 때문에 고대의 농민들은 신들의 심술궂은 처사에 대한 분풀이로 떡갈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문학에서도 떡갈나무의 등장을 살펴볼 수 있는데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의 제 3행에서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중 갈잎은 떡갈나무를 말한다. 참나무 중에서 잎사귀가 가장 넓은 떡갈나무 잎은 보송보송한 황갈색 털이 나

51) 이바스 리스너, 『고고학의 즐거움』, 최영인·이승구 옮김, 살림, 2008, p.265.

52) 할머니가 고집을 꺾을 때 엄마가 '나무를 흔들러간다'는 말을 했기 때문일까? 이제 할머니를 보니 다른 나무들에서 멀리 떨어져 작은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처량한 늙은 떡갈나무가 떠올랐다. (R, p.48)

53) R, pp.60-61, 참조.

54) 황신영, 『린네가 들려주는 분류이야기』, 자음과 모음, 2008, 참조.

있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너울거리는 모양새가 마치 노래를 하는 듯 분위기를 자아낸다.

게다가 떡갈나무는 성모마리아 나무 또는 성인나무라는 별칭으로 유럽에서 전해오는데 떡갈나무에 요정이 살고 있다는 전설 때문에 동화책에 나오는 요정들은 대개 떡갈나무 잎으로 만든 모자를 쓴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떡갈나무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렇게 시와 동화, 소설, 그리고 전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가브리엘 루아가 그녀의 소설 속에서 할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떡갈나무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루아가 할머니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비유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다. 앞서서도 잠시 이야기했듯이 떡갈나무는 “제우스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상징이다. 또한 예루살렘의 지성소에 썼던 나무로 성스러움과 장수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⁵⁵⁾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될 때 교회건축 재료로 쓰였으며 목재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도 십자가만큼은 반드시 떡갈나무로 만들 정도로 신성시했다는 점에서 떡갈나무는 매우 성스러운 나무에 비유되고 있다. 어린 크리스틴이 할머니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본다면, 떡갈나무와 할머니의 성스러운 이미지는 그 의미가 상응함과 동시에 관념적인 측면에서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본문에서 생 툴레르 할아버지가 크리스틴에게 호수를 일컬어 ‘영원’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자연세계에서 물은 형태가 없으며 성질이 매우 단순하고 모든 생성과 소멸하는 생태계의 존재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깊이 빠져들고 떠오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연의 순환성을 점차 확장해 나간다. 가브리엘 루아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물, 즉 영원성으로 상징화되는

55) cf. Dictionnaire 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 No. 5, p.654.

위니펙호수는 실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상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근원이 자연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루아의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물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 그것은 자연의 순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간의 탄생과 죽음과도 의미가 상통한다. 그것은 소멸로써, 죽음으로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생성되고 재탄생함으로 순환의 과정을 거쳐 영원에 이르는 것이다.

탈레스의 물질관에 의하면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은 물에서 비롯되었으며 물은 곧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⁵⁶⁾

“내가 아는 건 그저 물이 땅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듯 보인다는 거란다. 어찌면 물이 땅보다 더 오래되었기 때문이겠지. 세상이 창조될 때 모든 것이 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단다.” (R. p.120)

"Tout ce que je sais, c'est que l'eau paraît en savoir plus long que la terre, peut-être parce qu'elle est plus ancienne. Tout a commencé par l'eau dans la création." (RA. p.81)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측에 따르면 탈레스가 물을 우주의 본질로 본 까닭은 “모든 것의 양분에 수분이 있으며, 모든 생물의 씨가 수분의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⁵⁷⁾ 이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있어 물이란 생명의 근원지이다. 엄마의 자궁 속 양수가 탄생을 위한 생명의 물이었던 것처럼, 태어나 처음 맛보는 음식이 모유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물은 생명의 시작임과 동시에 생태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이다.

56) 가스통 바슐라르,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98, p.10.

57) W.K.C. 거스리, 박종현 옮김, 희랍철학입문, 서광사, 2006.

성경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⁵⁸⁾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물은 성스러운 물로 원죄를 씻어주는 정화의 상징이며 영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며 생명의 재시작 즉 구원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은 죽은 것을 살려내는 재생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깊은 산 속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나 약수에 생명력이 있다고 인간이 생각하는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브리엘 루아가 그녀의 소설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태적 순환의 법칙은 출발선과 도착선이 명확한 100미터 달리기와 아닌 시작도 끝도 존재하지 않지만 결코 정지하지 않고 등글게 이어져 반복되는 것, 결국 이러한 순환의 힘이 바로 생태계의 생명을 이어가는 영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봄이 왔다. 이를테면 어느 날 아침, 날이 밝으면서 봄이 태어났다. 여러 주일 전부터 쏟아지는 비, 무거운 구름, 흐린 하늘 밑에서 숨을 죽이고 준비를 해오다가 해가 반짝 나는 첫날 바로 우리 눈앞에서 활짝 꽃이 핀 것 같았다. (EV. p.251)

Le printemps arriva. Il naquit, si l'on peut dire, avec le jour, un beau matin. Depuis des semaines il s'était préparé en sourdine sous des pluies battantes, de lourds nuages, des ciels gris, et voici qu'au premier jour ensoleillé, sous nos yeux il parut éclore. (CEV. p.172)

따라서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고 늙고 죽는 것이 하나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자연의 섭리와 더불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흙⁵⁹⁾에서 태어나 흙으로 되돌아간다. 흙으로 되돌아가면서 그것으로 끝이 되

58) 요한복음 3장 5절.

59) 바슐라르의 『대지 그리고 휴식의 몽상 (La terre et le rêveries du repos)』에서 말

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자연에 다시 생명을 주는 존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 역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죽음을 통하여 자신을 생태계에 되돌려 주는 삶의 질서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2) 소멸과 생성

자연현상에서 계절의 변화를 살펴보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으로부터 동면기(冬免基)를 취하는 겨울까지 자연은 끊임없는 변화와 반복을 거듭한다. 봄에 나오는 짙은 겨울 내내 땅 속에서 영양분을 비축하고 준비하여 나오는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다. 봄에 수분이 가득 차올라 파릇파릇 돌아났던 푸른 잎들이 가을이 되어 퇴색하고 마른 잎이 되어 떨어지는 것은 시작과 끝도 아니요, 생성되었다 소멸되는 개념과 달리 생태계의 순환과정일 뿐이다.

내가 뭘 알았겠는가? 사실 나는 이 삶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어 오히려 상심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나이에 이르지 않는 걸까?

“노인들만 있거나 젊은이들만 있으며 지루할 테니 그렇지.” 할아버지가 귀뜸해 주셨다.

그러고는 이런 생각으로 나를 이끄셨다.

“무엇인가를 보고 발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간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굉장한 일이란다.” (R. p.125)

한 흙의 보호 기능과 연관 지을 수 있다. 바슐라르는 “흙은 발을 닿게 하는 성질을 지녔기에 우리가 편히 설 수 있고 다른 자연 요소 중 유일하게 그 내밀성과 안정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식처로서의 상징적 기능을 지닌다.”고 언급하고 있다. -Gaston Bachelard, 『대지 그리고 휴식의 몽상 : 내밀성의 이미지 시론』, 정영란 역, 문학동네, 2002, pp. 7-12, 참조.

Qu'en savais-je? Au reste, J'étais plutôt découragée, je pense, par le sentiment de l'inégalité et de l'injustice en cette vie. Pourquoi aussi n'arrivait-on pas tous ensemble au même âge?

- On s'ennuierait, me fit-il remarquer, rien que des vieux ensemble, ou rien que des jeunes.

- Ce qu'il y a de beau, c'est que tu vas avoir tout le temps qu'il faut pour aller voir et découvrir. (RA. p.84)

봄이 짧다고 아쉬워하며 따뜻한 봄이 지속되기만을 바란다면 생태계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성되고 소멸됨이 적당하게 유지될 때 자연도 인간도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서 의미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시계바늘이 한 순간에 머물러있지 않고 다음 숫자로 넘어가는 단계를 거쳐야만 현재의 시간은 과거가 되고 미래는 현재가 되는 것처럼 소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생성 또한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매 순간 다가오고 있으며 루아의 소설 속 본문의 내용 그대로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소멸해야만 생성이 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오히려 그 순간 그보다 나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건 젊었을 적의 할머니 얘기를 할 때 온화함이 깃들었다가 이내 슬퍼하고 허탈해하며 시시때때로 변하는 엄마의 얼굴이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다른 존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두 극단을 오가는 모습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늙었고 아마도 좀 더 늙어 갈 할머니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날렵한 발걸음에 눈에서는 불꽃이 튀고 새까맣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할머니는 용납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항상 늙은 사람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R. p.33)

Non, ce qui me confondait le plus, c'était maman elle-même, son

visage changeant, triste et doux quand elle parlait de grand-mère jeune, puis ensuite seulement triste et affaissé. Je ne comprenais presque plus rien à ce va-et-vient d'un être humain à travers le souvenir d'un autre être. Une grand-mère vieille et qui vieillirait peut-être encore un peu, cela je pouvais l'admettre, mais une grand-mère au pas alerte, aux yeux de feu et à l'épaisse chevelure noire, je ne le pouvais pas. Je suppose que je devais croire que grand-mère avait toujours été vieille.. (RA. p.25)

자연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부분과 마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생태계의 질서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무언의 질서이며 생명의 순환법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연을 거스르고 역행한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성을 상실한 자연이 되며 더 이상 진정한 교감을 이루기 힘들게 된다. 자연의 모든 형태는 생명을 담은 그릇과도 같다. “생명이란 진화해 가면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조직체”⁶⁰⁾라고 정의하듯이 인간을 포함한 자연적인 존재들의 생명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늙고 소멸함으로써 생성을 돕는다.

여기에서 크리스틴이 용납할 수 없는 할머니의 젊은 모습은 실제로 할머니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른 데 대한 것이 아니다. 크리스틴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젊은 여인은 크리스틴에게 있어 결코 할머니가 아니었고, 그것은 할머니의 지나온 삶에 대하여 어린 소녀가 경험할 수 없으므로 생겨난 무지였고 불신이었던 것이다. 즉 가시적 영역에 대한 신뢰의 부재였던 셈이다.

자연이 사계절을 거쳐 순환을 반복하듯이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봄은 유년기로, 여름은 청소년기로, 가을은 장년기로, 겨울은 노년기를 상징하며 자연 법칙에 순응하여 끊임없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순환을 반복하여 흘러간다.

60) 박인원, 『생명의 기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p.282.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를 통하여 영겁 회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만물은 가고 만물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바퀴는 영원히 돈다. 만물은 죽으며 다시 꽃피우고 존재의 해는 영원히 달린다. 만물은 파괴되고 다시 생긴다. 존재의 동일한 집은 영원히 세워진다. 만물은 헤어지고 다시 만난다. 존재의 반지는 영원히 자신에게 충실하다. 모든 순간에서 존재가 시작된다. 여기의 모든 주변을 저쪽의 공이 돌아간다. 중심은 도처에 있다. 영원의 길은 굽어있다.”⁶¹⁾

시간이라는 명제 앞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또한 모든 만물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머물러있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멸되며 생성되는 것이다. 사람이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생명탄생의 재시작의 의미로, 자연에서 빚어진 인간이 그 생명을 다하고 난 뒤에 다시 자연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로 돌아감으로써 무한히 반복되는 생태적 순환 고리의 신비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3) 이별과 만남

본 논문의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순환’을 구성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죽음과 탄생, 소멸과 생성, 이별과 만남이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별과 만남은 이 모든 것의 총체라 하여도 과연 아닐 만큼 모든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이별은 서로 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헤어짐은 만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상호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별은 언제나 슬프고 견디기 힘든 일이다. 그런 의미로 문학과 예술에서 이별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애잔하면서 슬프고 그리움의 여운이 남는 것을 느

61) in 강영계, 『니체와 문명비판』,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7, p. 273.

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이별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알타몽으로 가는 길』에서 노인과 아이는 위니펙호수로의 짧은 여행을 통하여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시간적으로 죽음과 더 가까이 있는 노인이 어린 크리스틴에게 들려주는 죽음에 대한 시각은 매우 차분하며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노인이 삶과 죽음을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자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별과 만남의 의미로 바라보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가브리엘 루아의 소설 속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이별로써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쪽에서 다 끝나면 가는 저 세상은 어디에 있나요?”

할아버지를 향해 치켜든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얇은 미소를 지으셨다.

“정확히 안다면 그곳은 아마 덜 아름답고 덜 매력적이겠지. 네가 모험을 떠날 때도 뭘 발견하게 될지 정확히 모르는 편이 즐겁지 않겠니?”

“뭔가를 발견하는 거니까요.”

“아무렴...! 아무렴 그렇지...!”

갯빛 하늘 아래서 할아버지가 내게 말씀해 주신 그 신비로운 나라가 내게도 흥미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곳이 호숫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까요?”

“아마도 그렇겠지. 난 우리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그곳에서 함께 만나리라 생각한단다.” (R. p.123)

- De l'autre côté, là où on va quand c'est fini par ici, où ça se trouve?

Il sourit finement en considérant mon visage levé vers lui.

- Si on le savait exactement, ce serait peut-être moins beau, moins attirant. Quand tu pars dans tes découvertes, est-ce que ce

n'est pas agréable de ne pas trop savoir au juste ce que tu vas découvrir?...

- Parce que c'est une découverte?

- Comme tu dis!... Comme tu dis!...

Ce pay mystérieux dont il m'entretenait sous le ciel de plomb, je commençais à le trouver bien intéressant.

- Est-ce que ce sera plus beau encore qu'au bord du lac?

- Probablement. J'ai comme l'idée qu'on va se retrouver tous ensemble par là, les gens et les choses qu'on aime. (RA. p.83)

노인에게 있어 죽음은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 낯선 곳에서의 재회를 의미한다. 신비로운 나라라고 명명된 그곳은 그 누구도 미리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다. 이별하고 싶지 않지만 마치 탐험을 떠나듯 기대하며 떠날 수 있는 것은 이 미지의 세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린소녀는 하늘과 맞닿은 호수의 끝에서 마치 간접적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보고 있는 듯 노인에게 또다시 끝과 시작에 대해 질문을 한다.

그 동안 나는 두 눈을 비비며 물 위에서 진율하는 빛 너머로 호수의 끝을, 그 떠나면 연안을 찾으면서 이렇게 물었다.

“저기, 저-기는 끝인가요, 아니면 시작인가요?”

:

“끝이냐고? 아니면 시작이냐고? 또 그런 질문을 하는구나! 끝과 시작이라.. 사실은 그 둘은 같은 게 아니겠니?”

할아버지는 이 말씀을 하시며 저 먼 곳을 물끄러미 응시하시더니 이렇게 되풀이하셨다.

“그 둘은 같은 게 아니겠어? 어쩌면 끝과 시작이 서로 만나 모든 것이 커다란 고리를 이루게 되는 걸지도 모르지.” (R. p.109)

Tout ce temps, je me crevais les yeux à essayer de percevoir, au delà de la vibration de la lumière sur l'eau, la fin du lac, ses rives lointaines.

" Là-bas, là-bas, demandai-je, est-ce la fin ou le commencement?

:

"La fin, le commencement? Tu en poses de ces questions! La fin, le commencement... Et si c'était la même chose au fond!"

Il regardait lui-même très loin en me disant cela, et répéta:

"Si c'était la même chose!.. Peut-être que tout arrive à former un grand cercle, la fin et le recommencement se rejoignant." (RA. p.75)

"미르체아 엘리아데 (Mircea Eliade 1907-1986)⁶²⁾는 물은 모든 형태를 부수고 모든 역사를 폐기시킴으로서 정화, 재생 새로운 탄생의 힘을 소유하게 한다고 말한다. 또한 천주교에서는 성당에 입회할 때 성수로 삼위일체를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신 앞에서 깨끗이 하고 들어간다. 이것은 성스러운 물로 자궁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도하는 의미와도 연결되는데 이런 의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물이 죽음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즉 물은 죄의 죽음과 영혼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⁶³⁾ 따라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 즉 새로운 만남이 된다. 식물이 죽어 뿌리로 돌아가고 인간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 새롭게 재탄생되어 만나는 모든 원리는 생태계의 질서이고 순환이며 영원이 되는 것이다.

62) 루마니아 출신 비교종교학자이자 작가.

63) 김민영, 「물의 이미지와 시간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p.4.

호수가 둥글지 않다면 시작과 끝이 서로 닿을 수 있는지 여쭙어 보았다. 할아버지는 그렇다고 해도 그 둘의 신비로운 만남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고, 시작과 끝은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는 법이라고 대답하셨다. (R. p.110)

Je lui demandai si, le lac n'étant pas rond, le commencement et la fin pouvaient quand même se toucher. Il me répondit que cela ne changeait rien à la mystérieuse rencontre, que la fin et le commencement avaient leur propre moyen de se retrouver. (RA. p.75)

"고대에 시간은 천체의 순환적 운동에서 발견되는 리듬이었고, 따라서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시간개념을 갖고 있었다."⁶⁴⁾ 그것은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닌 호수처럼 둥근 모양으로 시작과 끝의 구분이 없이 언제든 다시 만나 재결합하고 재탄생되는 의미와 상통한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질서를 만들어내며 비워지고 채워짐의 반복을 되풀이한다. 다시 말해 자연 속에서 식물의 씨앗이 생명을 탄생시키고 꽃을 피우는 것은 매우 경이롭고 아름다운 광경이다. 그러나 꽃은 계속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고 지기 마련이다. 가시적으로는 꽃이 시들어 사라지는 것, 즉 이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꽃이 진 바로 그 자리에 또 다른 생명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된다. 자연의 섭리는 이처럼 이별을 고하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즉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열매로, 씨앗으로 재탄생되고 영속되는 것이다.

64)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1997, p.43.

Ⅲ. 결 론

가브리엘 루아의 작품 중 『내 생애의 아이들 *Ces enfants de ma vie*』 과 『알타몽으로 가는 길 *La route d'Altamont*』 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외와 공생, 그리고 순환하는지를 생태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인간과 자연은 합일된 존재로 인간은 자연 속에서 생명을 영위해 나가며, 모든 생명체는 자연을 통하여 자양분을 얻고 자연으로 회귀하여 다른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는 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생태적 순환을 반복하고 있음을 본고를 통하여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이 두 작품은 자연과 노인과 아이라는 오브제가 중심축을 이루며 ‘여러 편의 중·단편’ 소설을 마치 하나로 이어놓은 연작 장편 소설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작품들이 루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라는 점에 주목해볼 때, 각각의 다른 주제들이 동일한 등장인물 혹은 반복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하나로 통합되는 성장소설과 같은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대공황을 경험한 인간에게 황폐하고 적막한 자연은 더 이상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공간이 아니다. 이에 더하여 그 곳은 낯선 언어와 문화가 혼재하는 곳으로 정체성마저 불분명한 이주민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부초 같은 삶을 이어가는 땅이다. 이 땅은 ‘인적 없는 황량한 공간들과 기막힌 침묵’으로 둘러싸인 공간, 다시 말해 원초적 대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소외된 아이들과 노인, 그리고 그들이 숨을 쉬며 살아가는 터전인 척박한 자연환경은 외로움을 표상하는 듯 보이지만 그들은 원초적 순수함을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광채 없고 어둡고 쓸쓸한 공간을 상징하는 이곳은 희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루아는 이곳을 도리어 '젊은 고장'이라고 칭하며, 이곳으로부터 희망이 찾아온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자연환경과 더불어 척박한 이주민의 삶에 희망을 전해주는 생명체로 루아가 선택한 대상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구슬픈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내리며 학교로 향하고 그곳으로부터 미개척지인 황무지를 삶의 터전으로 바꾸고자하는 그들 부모의 희망인 배움의 씨앗이 되어 돌아온다.

생물학적으로 씨앗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전까지 껍질에 둘러 싸여 외부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그 씨앗에서 싹이 돋아나기까지 씨앗은 같은 형태로 머물러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새 생명을 바깥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한 보이지 않는 준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조그맣고 쓸모없어 보이는 작은 알갱이가 바람이 불면 바람이 안내해준 방향으로 흩날리고 뿌려져 긴 시간에 걸쳐 생명활동을 반복하며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는 순리는 가브리엘 루아의 작품에 묘사되고 있는 이주민의 삶과 닮아있다.

그녀가 이방인으로서 보낸 어린 시절의 혼란은 『내 생애의 아이들』을 통해 온전하게 전달된다. 교사였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시작하고 있는 작품의 첫 소절은 낯선 언어로 가득 채워져 두려움이 증폭되던 개학 첫날의 분주함을 묘사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한편으론 외롭고 혼란스러웠던 이주민 아이들의 이름 속에 투영된 작가 자신의 또 다른 초상이다. 그러나 루아의 어둡고 험겨웠던 유년의 기억은 소설 속에서 자연과 노인, 화자를 자칭한 유년의 크리스틴과의 관계 맺기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아름답게 재생되고 있다. 그리고 소설 전체를 관류하는 정체성의 추구, 삶과 죽음이라는 테마가 주는 혼란스러움이 나름대로의 질서를 잡고 치유될 수 있는 것은 루아

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질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경험은 소설을 통하여 소외된 계층을 향한 낮은 시선을 공감으로 승화시켜 독자와의 교감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작품의 처음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오브제들이 소외에서 공생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생명의 어울림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루아의 관계적 의식에서 비롯된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Adam)'은 '흙'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아다마(adamah)'에서 유래한 말로 '인간' 혹은 '붉은 흙'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사람이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태계의 질서가 무한히 반복되는 것, 즉 생명탄생의 재시작의 의미한다. 무한한 자연 속에서 유한한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삶을 통해 점점 죽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자연의 영원한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끝이 아닌 또 다른 탄생을 의미하며, 소멸이 아닌 생성으로, 이별이 아닌 만남으로 끊임없이 창조되고 재생됨을 가브리엘 루아의 작품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자연과 노인과 아이라는 오브제가 루아의 작품 속에서 새롭게 재조명되면서 생명 중심의 생태계를 이루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명체이며, 이들이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는 것은 사라짐이 아닌 순환과 반복을 통한 공생으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을 본고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참 고 문 헌

1. Texte de Gabrielle Roy

Gabrielle Roy, *Ces enfants de ma vie*, Boréal, 1993

Gabrielle Roy, *La route d'Altamont*, Boréal, 1993

가브리엘 루아, 『내 생애의 아이들』, 김화영 옮김, 현대문학, 2003

가브리엘 루아, 『전지전능한 할머니가 죽었다』, 이소영 옮김, 이텐슬리벨, 2012

2. 국외 논문 및 참고서적⁶⁵⁾

Bachelard(Gaston), *L'air et les songes*, Librairie José Corti, 1981

Bachelard(Gaston), *L'eau et les rêves*, Librairie José Corti, 1981

C.G. Jung, *Traum und Traumdeutung*, hrsg. von Lorenz Jung, München 2001

Dictionnaire 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 No.5

Everette (J.) & Ricard (F.), *Gabrielle Roy Réécrite*, Québec, Nota bene, 2003.

Francis (Cécilia), *Gabrielle Roy autobiographe*, Québec, Pul, 2006.

Gauvin (Lise), *Langagement ; l'écrivain et la langue au Québec*, Montréal, Boréal, 2000

Gilbert-Lewis (Paula), *The Literary Vision of Gabrielle Roy : An Analysis of Her Works*, Summa publication, 1984

65) 몇몇 자료들은 연구에 인용되지 않았지만 후속연구를 위해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 Guattari (Félix), *Les trois écologies*, Galiée, 1989
- Harvey (Carol), *Le cycle manitobain de Gabrielle Roy*, Québec, Plaines, 1993
- Mailhot (Laurant), *La littérature québécoise*, Montréal, Typo, 2003
- Nepveu (Pierre), *L'écologie du réel : mort et naissance de la littérature québécoise contemporaine*, Montréal, Boréal, 1999
- Parizeau (Alice), *Gabrielle Roy, la grande romancière canadienne*, Montréal, Châtelaine, 1966
- Ricard (François), *Gabrielle Roy*, Montréal, Fides, 1975
- _____. *Gabrielle Roy. Une vie*, Montréal, Boréal, 2000
- _____. *Introduction à l'œuvre de Gabrielle Roy (1945-1975)*, Québec, Édition Nota bene, 2001
- Saint-Martine (Lori), *Lectures Contemporaine de Gabrielle Roy*, Montréal, Boréal, 1998
- _____. *Le nom de la mère : Mères, Filles et Écriture Dans la littérature québécoise au féminin*, Édition Nota bene, 1999
- _____. *La Voyageuse et la Prisonnière*, Montréal, Boréal, 2002
- Sockett (Paul), *Gabrielle Roy aujourd'hui today*, Saint- Boniface, PLAINES, 2003
- Toussaint (Ismène), *Gabrielle Roy et le nationalisme québécois*, Montréal, Lanctôt Éditeur, 2006
- Vanesse (André), *Gabrielle Roy Écrire, Une vocation*, Montréal, XYZ Éditeur, 2004

3. 국내 참고서적

- Simone de Beauvoir*, 『노년』, 홍상희·박혜영 옮김, 서울: 책세상, 2002
- W.K.C. 거스리, 박종현 옮김, 희랍철학입문, 서광사, 2006
- 가스통 바슐라르,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98
- 강영계, 『니체와 문명비판』,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7
- 개역개정 성경전서, 아가페, 2012
- 김상환, 「예술가를 위한 형이상학」, 『철학의 두 가지 초상』, 민음사, 1999
- 김성곤, 「모자이크문화와 캐나다문학」, 『외국문학』, 1991
- 김용민, 『생태문학』, 책세상, 2003.
- 김옥동,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심는 사람, 2003
- 김해옥, 『생태문학론』, 새미, 2005
- 김화영, 「퀘벡문학을 찾아서 - P. Nepveu, G. Marcotte와의 대담」, 『현대문학』, 2002, 01
- 노태준, 『주역』, 홍신문화사, 1999
- 박완서, 『어른노릇 사람노릇』, 작가정신, 1998
- 박인원, 『생명의 기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소천맹, 『노인심리의 실제』, 고정자 역, 동아대학교출판부
- 스티븐 해로드 뷰너, 『식물의 잃어버린 언어』, 박윤정 역, 나무 심는 사람
- 이남호, 『녹색을 위한 문학』, 민음사, 1998.
- 이바스 리스너, 『고고학의 즐거움』, 최영인·이승구 옮김, 살림, 2008
- 이재두, 소용영, 김윤식, 『식물 생태학』, 아카데미 서적, 1993
- 정상현, 『퀘벡 소설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진중권,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휴머니스트, 2005

황신영, 『린네가 들려주는 분류이야기』, 자음과 모음, 2008

4. 국내 학위논문

김나연, 「공감 초점 및 행위의 통제가능성에 따른 집단 내 의사소통」,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12

김민영, 「물의 이미지와 시간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김윤선, 「한국 현대 소설에 나타난 인간갈등 - 『가족 문제를 중심으로』」, 인간연구, 제 8호, 2005

김인경, 「가브리엘 루아와 혼종공간 『내생애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l'entre-deux'의 표상」, 한국불어불문학회, 2011

김정현, 「무의식과 꿈의 문제 『니체와 프로이트, 융의 해석을 중심으로』」, 니체연구 제 13집,

박정미, 「가브리엘 루아의 『세상 끝의 정원』에 나타난 종말의 체험과 인간 존재의 의미」, 『문학과 종교』 제 13집, 2008

성기월, 이신영, 박종한, 「'한국노인의 지혜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0, Vol. 30, No 1

안보옥, 「가브리엘 루아의 『세상 끝의 정원』에 나타난 희망의 신비」, 『문학과 종교』 제 15집, 2010

오정숙, 「퀘벡 작가 가브리엘 루아의 자서전 『비탄과 환희』에 나타난 유년기 이야기」, 『불어불문학회연구』 제 80집, 2009

오춘란, 「자연형태와 예술적 형상의 비교」, 『새한철학회 논문집』, 2000

이지순, 「*La relation mère-fille dans les écrits autobiographiques de Gabrielle Roy et Pak Wanso*」,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 31집, 2010

이찬규, 「가브리엘 루아와 장소의 생태적 상상력」, 한국연구재단연구계획서, 2010

이찬규, 「가스통 바슐라르 혹은 행복의 생태학」, 인문과학, 제 43집, 2009

정순진, 『순환의 질서를 위하여 : 현대시와 생태윤리』, 녹색평론사 41, 1998

황지영, 「인쇄광고에 표상된 노인모델의 이미지 : 기호학적 접근」, 광고학연구 제 13권 2호, 2002

ABSTRACT

The ecological cycle between the nature and humans
in the novel of Gabrielle Roy
- centered on 「*Ces enfants de ma vie*」 & 「*La route d'Altamont*」 -

Park Sang hyun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Bible says, " Return to me, I will return to you" (Malachi 3:7). If calling on people for reconciliation and reversion is some place not a god, which place means nature of hometown, The late Gabrielle Roy, a French from Quebec, is one of the most well known writers in this field. Her view of nature is meaningful in the way that the nature of hometown reflects a detailed bitter struggle against reality beyond the pastoral natural world or being content amid poverty and taking pleasure in acting in an honest way. And the fact that the view of nature sublimates to a form of

religious salvation is the main motive of this thesis.

Roy revives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in Manitoba and the nature, and even the characters in it beautifully in her autobiographical and retrospective novel, 『*Ces Enfants de ma vie*』 and 『*La route d'Altamon t.*』. However the beauty is the valuable beauty because it is acquired in the realistic pain. The elaborate description which awakens the grandeur of nature, her warm and vivid writing style containing the greatness and preciousness of the nature and the truth in her own relationships of her is also an important part. Roy suggests that all things in the universe coexist through a medium of a massive relative aspect which is 'nature'. She also points out that human beings are just part of nature and that there is no exception in the order of cycles.

Especially, the characters in 『*Ces enfants de ma vie*』 are people in our society who are neglected, such as immigrants from different places, poor children and senior citizens. The natural environment in Canada which is vast and barren meshes with the condition of life which these people have to endure. Therefore, for the writer, the barren environment of hometown symbolizes a significant place which can be a foundation of intrinsic sensitivity, which realizes the true worth between human and nature. In short, the meaning of place originates in fundamental experienc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rld.

If we look at the relationship making in Roy's novel, we can see the

correlation of objet which organizes the novel.

There are common themes such as love, farewell, sadness, illness, success, death, and hope etc. However, the nature, children, and elderly men are mostly shown. Therefore with an ecological view, I concentrated upon how the materials; nature, children, and elderly men are harmonized in 『*Ces enfants de ma vie*』 and 『*La route d'Altamont*』 .

In part 1 of this thesis, I see nature and human as an isolated object through the wounded natural environment, the critical aged and the lonely children. This is the initial work that can analyze how the human and the nature exist as a fate of community through the multilateral analysis of characters.

In part 2, I see the meaning of symbiosis that nature which is a guardian or a curer and human harmonize through the pureness of children and elderly men who is a discoverer and a creator. This is the chapter which presents the value of symbiosis human have forgotten for a while in their literary imagination. The value of symbiosis is connected with a fundamental problem presentation that the preexistence concept of humanism has to be rid of anthropocentrism.

In part 3, I present that death and birth, extinction and creation, farewell and meeting exist with a cycle of nature through multilateral analysis of text. The cycle of nature guarantees vision about the world which neutralizes an artificial discrimination and class. This thesis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human are liberated from an awareness of their nature ruler, also nature and humans coexist, and that their existence is connected and circulates constantly as a link.